

기후위기 시대, 학교는 생태환경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2024. 11. 8.(금) 13:00~17:00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푸른꿈고등학교

주관: 학교법인 푸른꿈,
전북환경운동연합

● 푸른꿈고등학교 건학 이념 ●

백두대간의 정기가 한반도 중심을 휘돌아 가는 곳 덕유산 푸른 자락에 위치한 푸른꿈고등학교는 서로 섬김과 서로 살림의 상보공생적(相補共生的) 생태원리를 교육이념의 기저로 삼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1999년 3월 3일 개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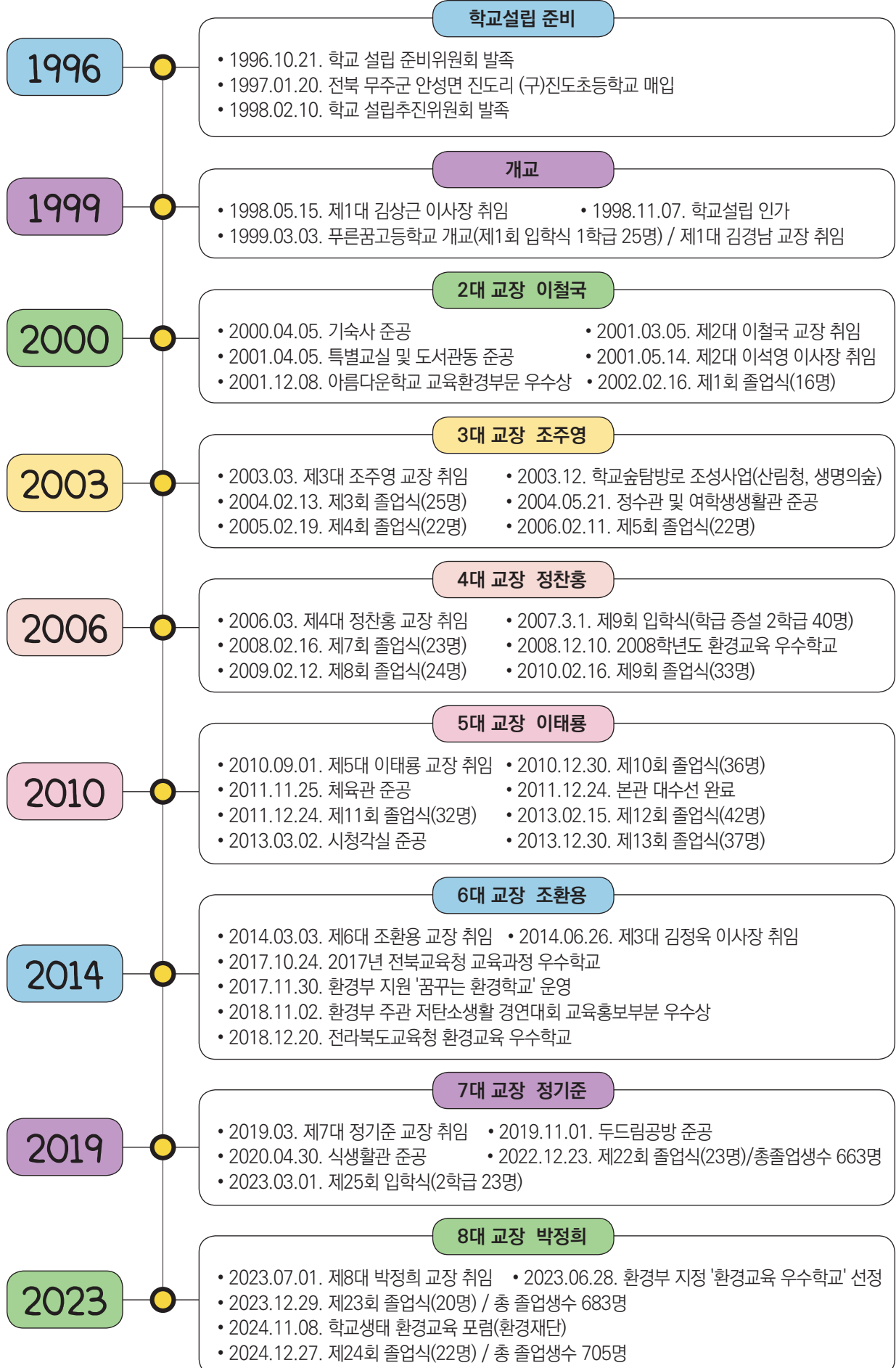
푸른꿈고등학교는 제도권 교육이 빚어내는 수많은 문제점을 교육현장에서 체험한 전·현직 교사들의 고뇌 어린 결단으로 시작되었으며, 참된 교육, 향후 세기를 준비하는 대안적 모델이 되는 새로운 학교의 장을 만들기로 결의하여 **1996년 10월 21일** 가칭 ‘푸른꿈을 가꾸는 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우리 교육 현실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 후원 에 힘입어 1998년 2월 10일 푸른꿈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98년 2월 27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번지 (구)진도초등학교에 참여 교사들의 출연금과 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1998년 5월 15일 학교법인 푸른꿈학원의 허가를 득하고, 1998년 11월 7일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

작은 학교, 소규모 학급을 원칙으로 하는 푸른꿈고등학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극단적 이기심과 경쟁심, 또한 거대 학교에서 보여지는 지나친 서열화와 익명성을 극복하고, 모두가 주인공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닮은 인간’을 양성코자 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학교인 푸른꿈고등학교는 21세기 신문명의 발원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육공동체로 영속되기를 염원하며, 여기 푸른꿈 1세대 교사들의 열성어린 뜻을 담아 아래의 규약을 선서하고 학교의 문을 연다.

1999년 3월 1일 푸른꿈 교사 제창

푸른꿈이 걸어온 길



푸른꿈고등학교 소개

‘자연을 닮은 사람’을 키우는 푸른꿈고등학교는 1998년 11월 7일에 개교하여 1999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았고, 2002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여, 지금까지 총 683명이 졸업하였습니다.

교 훈

자연을 닮은 사람

교육 목표

1.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 실현
2.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인간양성
3. 심성·실천·실력을 겸비한 푸른꿈인 육성

교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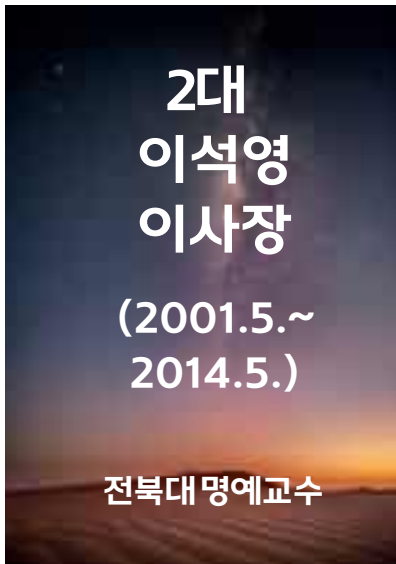
생명의 가치와 연결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학교법인 푸른꿈학원 이사장



**1대
김상근
이사장**
(1998.5.~
2001.4.)

전 한국방송공사이사장



**2대
이석영
이사장**
(2001.5.~
2014.5.)

전북대 명예교수



**3대
김정욱
이사장**
(2014.6.~현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명예교수



학교법인 푸른꿈학원 설립(1998년) 이사회 임원



김상근 이사장



허병섭 이사



김경남 이사



이우정 이사



박종화 이사



김찬국 이사



유재천 이사



이석영 이사



유정인 이사



정세균 이사



정복량 이사



이종태 이사



1대 김경남(1999.3.~2001.2.)



2대 이철국(01.3.~03.2.)



3대 조주영(03.3.~06.2.)



4대 정찬홍(06.3.~10.8.)

푸른꿈고교장



5대 이태룡(10.9.~14.2.)



6대 조환용(14.3.~19.2.)



7대 정기준(19.3.~23.2.)



8대 박정희(23.7.~27.6.)

기후위기 시대, 학교는 생태환경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2024. 11. 8(금) 13:00~17:00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푸른꿈고등학교
주관: 학교법인 푸른꿈, 전북환경운동연합



2024

학교 생태환경교육 포럼

프로그램 안내



등록 및 개회식

‘자연을 닮은 사람’을 키우는
푸른꿈고등학교, 학교법인 푸른꿈
김정옥 이사장 여는 말



주제발표

- 최원형 작가(질문으로 시작하는 생태감수성 수업)
- 황대원 작가(학교법인 푸른꿈 이사)
- 고성원 교사(푸른꿈고등학교 환경교과)
- 이항근 양육자(전 전주교육장)



토의

최원형 작가 / 황대권 이사 / 고성원 교사 /
이항근 양육자 /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참여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프레지던트호텔) 7층

☎ 010-6404-4554 박정희 교장(푸른꿈고등학교)

🌐 온라인 참가 신청서(<https://forms.gle/poocM5m4o4RAfmSt7>)





축사

김정욱 학교법인 푸른꿈학원 이사장	11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2
박정희 푸른꿈고등학교 교장	13

주제발표

내 삶과 자연의 연결성: 질문이 우리를 구원할지니! / 최원형	16
생태 감수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황대권	26
환경교사의 환경교육 / 고성원	30
행동하는 실천가를 기르는 교육 / 이항근	35

스물 다섯살 푸른꿈고등학교에게

대한민국 튼베리를 위하여 / 이무흔	39
---------------------------	----

설문 분석자료	42
---------------	----

요즘 푸른꿈고등학교 [교육활동]	58
-------------------------	----

| 축 사 |

**기후위기시대를 해쳐나갈 ‘자연을 닮은 사람’을
올바로 키우는 푸른꿈고등학교가 걸어온 길과 성과를
되돌아보고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학교법인 푸른꿈학원 **김정욱** 이사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실제 사망자는 2,000만 명이 넘고 이로 인하여 800만 명 이상의 고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깊은 생태계에 숨어 있던 병이 가축과 사람에게 옮은 에이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지난 반세기 동안 80여 가지가 돌았는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최근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지구상에는 바이러스가 800만종, 곰팡이가 600만종 가까이 있어서 이런 질병은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더욱 인류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훼손하면서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연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를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연을 닮은 올바른 인간으로 키우고 또 이 땅의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근본 목적을 잊은 채 전혀 다른 데 힘을 쏟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벌을 자랑하는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서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고, 대학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우뚝 세우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교육은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위기시대를 해쳐나갈 ‘자연을 닮은 사람’을 올바로 키우고자 푸른꿈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올바로 키우고자 참으로 사랑으로 돌보며 열심으로 정성을 다했고 학생들은 또 잘 호응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친 지 4반세기가 지나서 그동안 학교가 걸어온 길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생태환경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나갈지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 보고자 이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을 위하여 기본 자료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으로 수고해 주시는 최원형 작가님, 황대권 작가님, 이향근 선생님, 문지현 선생님, 고성원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우리 학교는 열심히 듣고 성실하게 교육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 사 |

**생명과 평화, 공존의 가치 아래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교육으로 실현하려는
학생, 교사, 양육자 모두의 푸른 꿈을 응원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지구 가열화와 지역소멸,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배움과 이해, 실천을 통해 좋은 삶과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워가게 하는 푸른꿈고등학교 개교 25주년, 학교생태환경교육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푸른꿈고등학교의 환경교육은 학교 환경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지켜볼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 활동으로도 만났고, 환경연합 초록시민강좌를 같이 듣기도 했고, 9월 기후정의행진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같이 걷기도 했습니다. 전북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에서 푸른꿈고등학교 사례를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중견 활동가로 성장해 제 몫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모두 청소년기를 자연 속에서, 그 순리를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이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환경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를 얻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환경교육 모델로 정리되고 일반화되길 바랍니다.

푸른꿈고등학교 환경교육은 사회환경교육, 지역사회 참여, 자원활동과 연계가 특징입니다. 서로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더 깊고 넓은 교육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와 단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를 보니 더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에 애써온 전문가, 생태전환 사회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어른, 좋은 삶이 우선인 양육자들이 함께해서 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생태환경교육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환경교육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경험과 자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축 사 |

푸른꿈고,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실천을 향한 대안교육의 25년의 시공간에 찬사를 보내며...



푸른꿈고등학교 박정희(8대) 교장

2022년 10월 푸른꿈고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지원서를 내던 날을 기억합니다. 학교를 향한 모든 길들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선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푸른꿈고등학교와 인연이 되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만을 꿈꾸었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푸른꿈고등학교는 환경교육을 집중하는 정도의 고등학교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야 얼마나 멋진 학교의 일원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꿈고등학교의 지난 25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하지 못했던 가치인 「자연을 닮은 사람」을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뤄내고자 모든 교직원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 Act Local). 영국 스코틀랜드의 도시사회학자 패트릭 게데스[패트릭 게디스 경(Sir Patrick Geddes FRSE, 1854년 10월 2일 ~ 1932년 4월 17일)은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 사회학자]가 1910년대 설파했던 이 말을 푸른꿈고등학교의 교사 모두는 교육과정에 녹여내어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푸른꿈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각 교과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돌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인 ‘돌봄’에 대한 것, 특히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하는지 학교 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적 대응은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전혀 감당하지 못할 문제이기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단순한 환경 교육만을 한다거나 겨우 관심을 갖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른꿈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힘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푸른꿈고등학교 모든 시간을 함께한 모든 교직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보내며, 졸업한 학생들과 또한 앞으로 함께할 모든 대한민국의 멋진 청소년들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푸른꿈고등학교의 연대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자고 힘차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학교생태환경포럼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기를, 그리하여 기후위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상호에게 따뜻하며, 모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아주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학교는 생태환경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발표



내 삶과 자연의 연결성

최원형 작가

13:30
TO
14:00

생태적 감수성 교육에 대하여

황대권 작가(학교법인 푸른꿈 이사)

14:00
TO
14:30



환경교사의 환경교육 이야기

고성원 교사(푸른꿈고등학교)

14:30
TO
15:00

행동하는 활동가가 되어야

이항근 양육자 (10기 졸업생 아버지,
전 전주교육장)

15:00
TO
15:30



종합토론

15:50
TO
17:00

최원형, 황대권, 고성원, 이항근,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내 삶과 자연의 연결성 질문이 우리를 구원할지니!

최 원 형 작가

“계속 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묻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도 있을 긍정적인 관련 증거에 너무나 빨리 눈을 감게 될 것이다.”

〈기계의 신화1/ 루이스 멍포드〉 중에서

‘기후 위기’라는 글자를 읽으며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낱말이 떠오르는가? 가뭄, 태풍, 폭염, 폭우인가? 탄소 배출, 탄소 예산, 1.5도, 그레타 툰베리, 멸종 반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인가? 혹시 ‘폭염에 떨어져 죽은 새’가 떠올랐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기후 위기를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나는 생각한다. 기후 위기는 모든 환경문제의 총합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게 생태계의 안녕이다. 그러니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조화로워야만 한다. 이런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어떠한가 하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던 사람으로서 바로 이 주제의 포럼에 참석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학교 교육에 열정적이고 이미 뛰어난 교수법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교사가 있을 텐데, 어썩잖은 내가 한 마디 없기가 저어되긴 하지만 그간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느꼈던 것, 희망 사항 등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 삶과 자연의 연결성에 관해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풀어보려 한다. 왜냐하면 기후란 지구상 모든 존재의 관계를 결정 짓기 때문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가 할까?

‘딱다구리의 날’을 아시는지? 올해 뜻을 같이하는 몇몇 지인이 모여 딱다구리보전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4월 27일에 창립포럼을 열면서 이날을 ‘딱다구리의 날’로 선포했다. 딱다구리는 어릴 적 만화영화로 먼저 만났던 새다. ‘우헤헤 헤헤’로 유명한 웃음소리로 개그 프로에서도 많이 회자 되던 딱다구리였다. 한참 시간이 흘러 책 작업을 하느라 취재를 하다가 숲에서 우연히 딱다구리를 만났다. 나무줄기를 타고 위로 오르며 벌레를 찾는 새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오색딱다구리였다. 붉은색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겨울 숲에서 딱따구리가 나무 쪼는 소리를 듣고 다가갔더니 내 머리 위로 지저께비들이 떨어져 내렸다. 웃음이 났다. 딱따구리와 내가 지척에 있다 생각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이런 경험이 계기가 되어 탐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며 번식하는 딱다구리가 여섯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무줄기에 동그랗게 파놓은 딱다구리

구멍을 더러 발견 했고 깃털이 푸른색인 딱다구리, 참새처럼 작은 딱다구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그 딱다구리가 누구일지 궁금했다. 수소문하다가 그 딱다구리가 이미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흰부리딱다구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귀한 새로 사랑받던 흰부리딱다구리의 멸종을 기록한 ‘사라진 숲의 왕을 찾아서’에는 가구를 만드느라, 1차, 2차 대전에 사용할 화약을 담을 나무상자를 만드느라 나무가 무참히 잘려 나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숲이 사라지면서 멋진 흰부리딱다구리는 점점 밀려나다 결국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며 절멸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를 잃은 상실감이 밀려왔다. 흰부리딱다구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흰부리딱다구리의 학명인 ‘캄페필루스 프린키파리스 *Campephilus principalis*’를 주문처럼 외우기 시작했다. 딱다구리보전회를 꾸리는데 마치 흰부리딱다구리가 ‘까막딱다구리를 꼭 지켜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딱다구리보전회를 만든 계기가 바로 심각한 절멸의 위기에 처한 까막딱다구리를 알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까막딱다구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딱다구리 가운데 가장 큰 딱다구리로 깊은 숲에 서식하는데 서식지가 날로 파괴되면서 점점 절멸의 벼랑으로 밀려가고 있다.

딱다구리를 오랜 시간 관찰해오고 있는 딱다구리보전회 김성호 공동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번식기인 봄마다 숲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 전쟁이란 바로 둥지 쟁탈전인데 딱다구리는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나무에 구멍을 뚫고 둥지를 만드는 새다. 이 둥지에 신세를 지는 생명으로 원앙, 동고비, 박새, 소쩍새 같은 조류뿐만 아니라 날다람쥐, 청설모에다 벌까지 적어도 16종이 있다. 딱다구리의 생태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딱다구리라는 새가 우리 숲에서 사라진다면 딱다구리 둥지에 깃들어서는 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은 어디서 번식하며 살아갈까? 특히 원앙은 물에 사는 새면서도 나무에 둥지를 트고 번식하는데 오래된 나무에 자연스레 생긴 수동이 줄어들자 까막딱다구리 둥지를 번식 둥지로 사용한다. 그런데 까막딱다구리가 둥지를 지을 나무가 부족해지다 보니 둥지 쟁탈전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 원앙을 떼어버리려 까막딱다구리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지만 원앙도 번식을 위해 산속 깊은 곳까지 까막딱다구리를 따라간다고 한다. 주택난이 인간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그렇다면 왜 새들은 이토록 둥지 쟁탈 전에 몰리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탄소중립’ 때문이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나무가 전체 산림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이 넘으면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하며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는다. 사람이 늙으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듯 나무도 오래될수록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8년 과학학술지 네이처에는 800년이 지난 숲도 탄소흡수원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벌목된 뒤 흩이 드러난 숲 바닥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충이 창궐하는 일도 벌어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딱다구리가 번식 둥지를 짓기에 적당한 나무들이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숲을 우리는 흔히 탄소흡수원으로,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배운다.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숲은 그 무엇보다 앞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우리가 뺀어낸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만 숲을 인지하니 산림청이 숲의 한 부분을 모두 베기해버려도 그걸 문제 삼는 이들이 많지 않다. 멸종하던 나무를 베어버리고 치유의 숲이라며 편백나무 숲을 만든다. 그리고

새로운 명소라며 홍보한다. 숲은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용도로, 우리를 치유해주는 장소로만 존재해야 하는 건가? 치유의 숲은 대체 무엇을 치유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나오면 대체 무엇에 좋은지 질문이 필요하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숲이란 무엇인지 묻자.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이런 생각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생긴 웃지 못할 일이 또 있다. 논에 상시적으로 물을 담아놓고 농사짓는 방식이 메탄을 대량으로 발생시킨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논물 관리 기술 보급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¹⁾ 이 방식이 메탄 발생을 억제시키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산화질소가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논생물다양성 문제는 고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을 빼는 과정에서 다수의 생물이 물에 빠져 나가버리기도 하고 말라 죽는 일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조화로운 삶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탄소중립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한다. 탄소중립의 해법이 나이 먹은 나무를 없애는 일이고 논물을 빼는 일일까?

기후 위기란 무엇의 위기인가?

기후가 위기라며 탄소중립만이 해법이라고 얘기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린 뉴딜이 등장했다. 대체 기후 위기란 무엇의 위기인가? 기후 위기는 누구에게 가장 위협적일까?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은 누구에게 가장 절실할까?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래도 어찌어찌 살 텐데 다음 세대가 걱정이예요.’라는 얘길 어렵지 않게 듣는다. 강의를 듣고 난 뒤 우려의 마음에서 하는 얘기일 거라 짐작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기성세대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을 피력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세대는 어찌어찌 살아갈 거라고요?’ ‘그걸 무슨 근거로 장담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기후가 위기로 치닫게 될 상황이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는 기저에는 기후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는 탄소중립 교육이 우려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기후란 무엇이고 기후가 어떻게 위기가 된다는 걸까? 기후를 날씨와 비교하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상현상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기후란 공기, 물, 나무, 흙, 인간 활동, 대기의 흐름, 해류, 빙하 등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인 관계다. 기후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과잉’ 활동으로 인해 함께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다. 어긋난 관계를 만들었다는 말에는 수많은 비인간을 서식지에서 몰아냈다는 의미이면서 기후 위기로 또다시 비인간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20년 호주 산불로 코알라는 기능적 멸종에 이를 만큼 기후 재난에 비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 적응이라는 말은 오직 인간 그것도 잘사는 나라에 사는 인간에 한정된 이야기다.

1)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79>

기후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과잉’ 활동으로 인해

함께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다.

어긋난 관계를 만들었다는 말에는 수많은 비인간을 서식지에서

몰아냈다는 의미이면서 기후 위기로 또다시

비인간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 북부에서 현생인류가 처음 태어났으며 13만 년 전에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북서쪽으로 그리고 남동쪽으로 이주를 감행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아예 지구의 다른 대륙으로 서서히 퍼져나간 길로 밝혀졌다. 이렇게 인류가 전 세계로 이주하게 된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는다. 기후에 변화가 생기자 이주를 한 까닭은 결국 먹고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²⁾ 아프리카에서 전 대륙으로 인류가 퍼져나간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이주자의 후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또다시 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닥칠 경우 누구든 이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주자, 특히 기후 재난으로 이주를 선택한 이들을 기후 난민³⁾이라고 하는데 이들 난민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교육 안에 녹여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역사나 사회 교과에서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기후 문제를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

먹고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인류 생존의 핵심이다. 결국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류에게 벌어질 치명타는 식량문제다. 이 부분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위기다. 식량문제는 학교 급식과 잔반 처리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다. 잔반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해법을 고민하지 않은 탄소중립 교육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현재 세계 식량 시스템은 매우 불평등하고 기상이변으로 이미 농작물 생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이 사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에 한국의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집계됐다.⁴⁾ 한발 더 나아가서 현재 글로벌 식량 시스템의 문제를 살피고 과잉으로 낭비되는 식량문제와 함께 육식의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식량생산을 위한 지구의 토지 이용’ 표(그림1)에서 보듯이 가축을 기르는데 사용되는 토지가 전체 농지의 80%를 차지하는데 비해 농지의 16%만 곡물 재배에 사용될 뿐이다. 육식이 증가할수록 가축을 기르는데 사용할 토지는 더 필요할 테고 이제 거주 가능한 육지라고는 숲(forests, shrub)뿐이다. 육식의 증가는 숲 면적이 줄어드는 걸 의미할 테고 더 많은 비인간이 서식할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2)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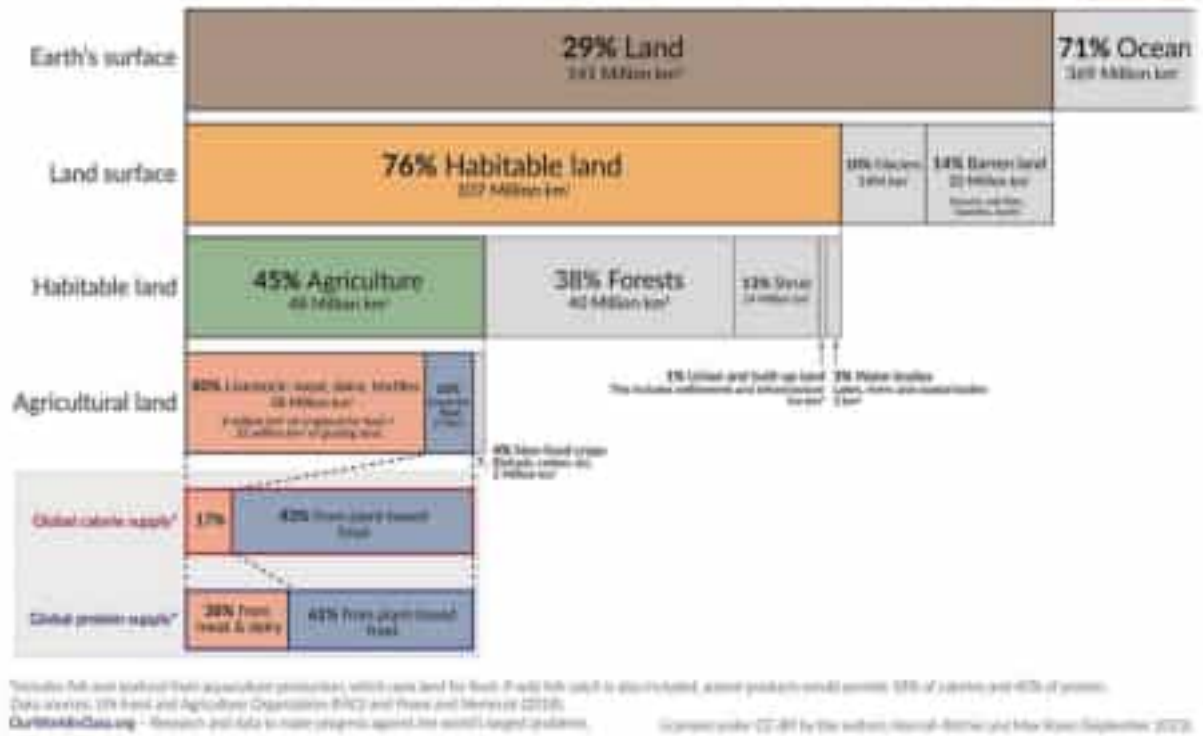
3)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최원형> 중 ‘세계 난민의 날’ 참고

4) <https://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673ff739-afc2-46d3-892e-ba78394c18cc>

5)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 환경 수업/최원형> 중 ‘세계 식량의 날’ 참고

Global land use for food production

Our World
in Data



〈식량 생산을 위한 전 세계토지 이용〉

곧 절멸의 길로 들어서는 생물 종의 증가를 의미한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이 가능해지려면 식단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육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채식 급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쪽에서는 버려지는 음식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약 7억 8,300만 명의 사람들이 다음 끼니를 언제 때울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 입이 아닌 가축 입으로 들어가는 곡물이 전 세계 곡물의 1/3이라는 불편한 진실도 교육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⁵⁾ 몇 년 전 모 지자체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자문을 부탁받았는데 급식실 잔반으로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탄소중립 활동으로 제시되어서 기함했던 적이 있다. 대량의 잔반 발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뒤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기후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위기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다. 식량을 식량안보, 식량주권으로 부르는 까닭이다.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식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넘쳐나는 육식(비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은 물 부족, 더 많은 삼림 파괴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글로벌 농업자본에 의해 과잉으로 식량 생산을 부추기는 한편에서 버려지는 먹을거리가 전 세계 먹을거리의 1/3을 차지하는 와중에 오히려 농작물 생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5)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 환경 수업/최원형〉 중 '세계 식량의 날' 참고

기후 위기가 벌어지는 이 아이러니.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 등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후 위기가 막연한 여섯 번째 대 멸종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기후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대로 짚고 있는 걸까?

기후가 변하면서 인류가 살 곳을 찾아 지구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면서 유전적 다양성,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을 발전시켰으니 오늘날 문화의 동력을 제공한 것 역시 기후다. 그러니 기후가 변하는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기후에 종속변수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존재할 따름이다. 오늘날 기후가 변하는 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까닭은 속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빠르게 기후 시스템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간 주체는 무엇(누구)일까? 탄소일까? 이 질문에서 환경 교육은 시작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탄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또한 멈춰야 한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의 책임은 무엇/누구인가?

기후 위기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를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건 이제 유치원생들도 공식처럼 외우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원인일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았던가? 연료였던 나무도 태우면 탄소를 배출한다. 실제로 지구의 평균기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후로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했던 건 아니다.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려 화석연료 소비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본격적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한 건 70년대 이후이고 가파른 기울기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다. 그 이전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양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지구 생태계가 받아들일 여력이 충분했기에 기온상승이 미미했던 거다. 뭉뚱그려 산업혁명 이후부터 기온이 상승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기후 위기의 원인을 알려는 노력이 부족한 표현이고 원인을 파악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90년대 이후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했을까? 당시 세계 경제 구조의 핵심은 세계화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 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국제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경 간 경제 이동이 자유로워진데다 중국이 체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합류했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값싼 인력이 대량 생산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거기 더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을 완성했다. 그리고 값싼 원료채굴로 인한 생태계가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그 덕분에 인류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열렸다. 왜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삶을 받쳐줄 만큼 지구의 비재생 가용자원은 넉넉한지 질문할 새도 없이 흠뻑 취한 채 풍요를 즐겼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날마다 풍요의 축제를 벌이는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빠르게 상승했다.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서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야 비로소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전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당장 물건 구입이 가능해진 세상, 더없이 풍요롭고 편리해진 생활의 이면을 들춰보지 않고 닥치고 '탄소중립'이라는 외침은 너무나 공허하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형성해놓은 건 누구일까?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시스템이 주요 엔진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의 이면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자연과 노동이 착취당하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진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 이 부분에 관한 언급이 기후 위기와 어떻게 연결지어 학습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인간과 비인간의 구도 속에서의 부정의, 북반구 국가와 남반구 국가 사이의 부정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부정의 등 차고 넘치는 부정의가 결국은 기후를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비로서 기후 위기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이토록 풍요로운 것은 우리가 원했던 걸까, 과잉소비를 부추기며 과잉생산을 원한 건 누구일까?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형성한 원죄가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과잉생산의 책임은 북반구에 위치한 부유국이며 더 범위를 좁히면 자본가이고 슈퍼리치다.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를 뒤덮으며 그 어느 때보다 부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 부는 소수에 집중되어 있고 날이 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슈퍼리치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기후 재난은 이미 저개발국가에서 현실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다. 최근에는 독일, 프랑스, 미국을 막론하고 북반구 나라도 기후재난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그러나 그런 풍경을 잘 들여다보면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닥쳐 마을이 쓸대밭이 되어도 부유층 거주지는 건재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이 없는 이들에 한정해서 기후 재난이 닥친다는 사실이다. 중국에는 인류 전체가 안게 될 문제일 테지만.

2015년 파리 외곽 르부르제에서 열렸던 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했을 당시 전 세계에서 모인 시민 활동가들과 거리를 행진하며 외쳤던 것은 ‘탄소배출 감소’가 아니라 ‘NOT CLIMATE CHANGE, BUT SYSTEM CHANGE’였다. 그때까지 시스템에 관한 고민이 크지 않았던 내게 그 구호는 지금까지도 굉장한 통찰력을 주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에 의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며 이 불평등한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부역해왔는지 반성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동시에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자본가들과 정치인을 향해 구체적인 방향 전환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이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동시에, 과잉 소비를 조장하는 과잉 생산의 주체인 기업(자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탄소배출 저감은 비현실적일 따름이다..

21세기 학교 교육이 20세기의 교육에 비해 얼마나 큰 진전을 이루었는지 사실 나는 잘 느끼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교육의 중심에 흔들림 없는 입시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을 만나면 질문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우리 사회에 일대 개혁이 벌어지지 않는 한 변화가 요원한 일일 것 같은데 후자는 대체 왜 그럴까? 질문이란 내 생각이 있어야 비로소 잉태되는 것이다. 내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질문이라는 게 비집고 일어날 틈이 없다. 기후가 왜 위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배운 지식 말고 내 질문을 찾아야 한다.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든 내 결론은 더 이상 무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이르게 마련이다. 강의 말미에 질문 시간을 갖곤 하는데 자주 받는 질문이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가 ‘저개발국가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비를 줄이거나 멈추면 어떻게 살아요?’ 같은 질문들. 일단 질문이니까 반갑지만 이런 질문의 바탕에는 과잉생산-과잉소비-과잉폐기라는 패러다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롭게 수정하지 않고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까지 아직 교육이 가 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부분의 교육이 절실하다. 무한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데올로기인지 가르쳐야 한다. 진정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소비문화에 포섭된 사회를 되돌릴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지?

쏟아지는 광고 문화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방법은 찾고 있는가? ‘쇼핑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을 광고로부터 보호해줄 마땅한 방법은 모색하고 있는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엘리트 지위가 속속들이 주입되어 있다며 필요를 부추기는 광고는 과시적 소비를 한껏 조장한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금세 시들해지고 머지않은 시점에 폐기물로 놔 둥군다. 그렇게 버려진 물건 하나 하나는 모두 지구에서 채굴한 자원으로 만들어져 아주 짧은 시간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다. 자원고갈과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지불할 제도는 누가 요구해야 하는 걸까? 사회의 모든 층위가 형평성있게 환경적 혜택과 비용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세금 제도의 개선, 선거제도의 개선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경제의 처리량throughput-원자재 투입으로 시작돼, 생산된 상품으로 전환되고, 마지막으로 폐기물로 처리되는 유량-을 생태계가 가진 재생력과 흡수력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이러한 최적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생각 전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제라는 하위 체계가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생태계에 의해 영원히 지지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⁶⁾ 생태경제학자였던 허먼 데일리가 생각하는 성장의 규모다. 우리는 성장의 규모를 애당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달려왔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10위의 나라로 도약했다. 눈부신 발전이라는 성과 이면에 온 국토는 몸살을 앓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지위도 목소리도 갖지 못한 인간, 비인간들의 절규는 허공을 떠돌 뿐이다.

빙하기에서 간빙기로의 이행기에 인류는 낮은 땅으로 이주라는 커다란 두려움에 직면했지만 시간이 흘러 홀로세라는 안정적인 환경을 맞이했다. 그렇게 적어도 7천 년 이래 살아오던 조화로운 기후 시스템이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까맣게 몰랐던 걸까? 인류는 그렇게 무지하지 않았다. 1979년 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열렸고 그보다 앞선 1972년에는 두 가지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인간환경회의’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다.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인간 환경 선언문이나 로마 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보고서는 52년이 흐른 지금 읽어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지점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어떻게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을까? 뛰어난 예지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적어두고 경고했던 이 귀한 기록을 우리는 왜 여태 제대로 읽는 일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 기후 위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장 이 자료들을 살펴보길 권한다. 결론은 무지와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 국제 협력을 통해 지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경제가 돈 버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경제는 환경보다 하위 개념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을까? 토지, 노동, 화폐가 상품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라는 걸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은

6) 성장을 넘어서-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학/허먼 데일리 중에서

이뤄지고 있을까? 지구라는 공공재에 대한 논의는 학교 안팎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걸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성장과 발전은 같은 것일까? ‘성장은 양적 팽창을, 발전은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고 허먼 데이빌은 정리했다. ‘생태계의 재생력과 흡수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에 도달하면 성장은 멈추고, 최대한 발전해 나가자고 우리 자신에게 촉구하면 된다. 비물질화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물질적 한계에 관해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런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적어야만 정상이다.’⁷⁾ 이렇게 놓고 보면 녹색성장이라는 말처럼 모순적인 말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녹색성장은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기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행동을 이끄는 시작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동의할 수 없다면 그런 용어는 폐기시켜야 마땅하다.

나와 연결된 것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알고 있는 새 이름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다섯 종을 넘기는 이가 드물다. 자동차 소음으로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 새소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더러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다면 들리지 않는 법이다. 내 주변에 철 따라 누가 오고 가는지 누가 함께 사는지 알지 못하면서 지구 생태계 보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우리들 자신과 자연 사이에 감성적 유대를 형성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의 멸종과 환경 악화를 막아 내려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생물학자, 진화생물학자이자 과학사가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의 말이다. 멀리 새만금에 오가는 철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만 내가 밭 딛고 사는 동네에 어느 계절에 어떤 새가 찾아오는지 어디서 어떤 재료로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르는지 아는 게 지속가능하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주 봐야 마음이 간다. 감정적으로 유대가 형성되어야 그들의 서식지가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우연히 보게 된 새집에 비닐 포장끈이 재료로 쓰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폭염에 부리를 벌리고 있는 새를 보고 있으면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폭우에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참새를 보면서 야생의 삶은 기후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절로 느껴진다. 그런 풍경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도울 방법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조화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다. 새들이 한창 둥지를 떠나 독립하는 시기에 바닥에 떨어진 새끼 새를 더러 발견한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미리 교육을 받는다면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곧 절멸할 거라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꿀벌은 가축의 지위를 획득한 곤충이니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해야 할 벌은 야생벌이다. 장수말벌에 쏘여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대다수 사람의 머릿속에는 ‘쏘다’, ‘무섭다’ 등 부정적인

7) ‘성장을 넘어서’ 중에서

정말로 기후 문제를 위기로 인지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우리 삶의 바탕인 기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원인을 찾아 요구하고 교육하고 대비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써왔던 낱말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다시 묻자.
 질문이 우리를 구원할지니.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미디어가 만든 편견이 아닐까? 추석 무렵이면 한 차례씩 뉴스에 등장하는 말벌로 혐오감이 형성된다. 만약 말벌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미리 알아서 예방할 수 있대도 말벌에 이토록 혐오감을 가질까? 봄이면 학교든 아파트든 공원이든 수목 소독을 한다. 수목 소독이라는 말은 과연 합당한 말인지 질문을 던져본 적 있는가? 소독은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다. 나무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일이 어째서 소독일까? 나무에는 다양한 곤충이 찾아오고 그 곤충을 먹이 삼는 새들도 찾아오며 생태계가 형성된다. 일방적으로 곤충은 해롭다거나 혐오스럽다는 건 오직 인간의 입장이다. 그렇게 상정해두고 살충제를 살포하는 행위를 왜 소독이라는 말로 둔갑시킬까?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일이다. 나비를 대다수는 ‘아름답다’, ‘예쁘다’고 느끼면서 애벌레는 징그럽다며 혐오한다.⁸⁾ 말벌을 혐오하고 나비만 좋아하는 이런 편견을 극복하는 시작은 질문이다. 아름다운 나비의 어린 시절 모습인 애벌레는 왜 징그러운가? 징그럽다는 건 내 생각이 빚어낸 느낌이 아닐까?

기후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오늘날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왔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관성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상이변이 닥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이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재난으로 인류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 것은 단순한 폭염이나 빈번하고 거세진 태풍이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일 것이다. 올여름 폭염을 겪으며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느낀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기후 문제를 위기로 인지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우리 삶의 바탕인 기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원인을 찾아 요구하고 교육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토록 기후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은 누구이고 무엇인지 묻자.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시스템은 지속가능한지 질문하자. 성장은 어느 규모까지 할 것인지, 숲이란 무엇인지 계속 묻는 것이 중요하다. 관습적으로 써왔던 낱말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다시 묻자. 질문이 우리를 구원할지니. ‘묻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도 있을 긍정적인 관련 증거에 너무나 빨리 눈을 감게 될 것’이라는 뎀포드의 말을 곱씹어 본다. 우리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기 이전에 지구환경은 이미 조화로웠다. 가장 늦게 등장한 우리에게 이 조화로우름을 깰 권리가 없다.

8) 질문으로 시작하는 생태 감수성 수업/ 최원형/ 블랙피쉬

생태 감수성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학교법인 푸른꿈학원 **황 대 권** 이사

1. 우물 안 개구리

지금 같은 교통과 통신이 없었던 시절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겪은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자기 지역의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나 풍물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애깃거리일 뿐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다. 우연히 외부 세계를 실제로 겪은 사람에게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믿지 않다가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혼돈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나간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그런 일은 소수에게나 벌어진다. 인식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혼자만 왕따 당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변화를 저지한다. 인터넷과 교통수단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옛날과 비교해 엄청나게 많아졌음에도 인식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식 정보가 특정 알고리즘에 갇혀있는 데다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과 알고리즘이 맞물려 한 사람의 인식 수준을 평생토록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상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있어 교육이 큰 역할을 한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해당 사회가 산업 인력이 필요하면 엔지니어링 위주의 교육을 할 것이고, 농사꾼이 필요하면 농사 관련 수업을 중시할 것이다. 오늘날 생태위기를 맞이한 학교가 갑자기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필자가 보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교육조차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내 눈에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면 하늘은 동그란 거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관찰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생태교육의 핵심은 관찰자를 떠나 나와 대상 ‘사이’에 머무는 것이다.

2. 사이에 머무는 것이 가능한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생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이들에게 멋진 야외용 복장을 입히고 교사의 인솔 아래 생태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스카우트 활동을 시킨다. 이런 식의 교육은 아무리 해도 아이들에게 수학여행 다녀온 것 이상의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실에서 하던 것과는 다른 색다른 수업일 뿐,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생태위기가 왜 왔는지 생각해 보라. 자연과 분리된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자연은 그저 체험학습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단언컨대, 생태 감수성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결코 아니다. 아이 스스로 깨우쳐야 할 덕목인데 어른 교사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아이는 헛갈린다. 세상에 아이들에게 “사이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언어로써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있을까?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려 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교사는 기존의 교사 위치를 벗어나 교사와 학생의 ‘사이’에 서서 학생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라고.

3. 교육의 어려움

생태 감수성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 교과 과정의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보다는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영적 각성’ 또는 ‘깨달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 각성이나 깨달음을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생태 감수성이기 때문이다. 불교를 공부하러 온 띠꺼머리 총각 놈에게 몇 년 동안 불경은커녕 허드렛일만 시킨 큰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스님, 왜 경전은 한 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마당만 쓸게 합니까?”

“이눔아, 그렇게 오랫동안 마당을 쓸면서 여태 부처님을 못 보았던 말이나!”

생태 감수성이란 천지가 나와 한몸이라는 것을 몸으로 터득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사가 가르칠 수 있을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학생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외엔 없다. 딸기를 따려면 학생을 딸기밭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4. 근본적 인식의 변화는 어느 순간에 오는가?

이 주제를 말하기는 몹시 조심스럽다. 현행 교육법이나 교육 관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현생의 학교 시스템에서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와 같다. 학생은 학부모와 교사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깨달음은 교사와 학부모의 간섭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온다!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학부모와 교사가 있을까? 생태 감수성이 탁월한 아이들은 대체로 다음과 경우에 발견된다. 첫째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자연 속에서 자란 아이, 둘째가 사고나 우연한 계기로 자연 속에 내버려진 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고난 호기심에 의해 집요하게 자연을

알고자 노력하는 아이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현대 학교 교육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가능한 일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필자 개인 경험을 말해 보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학교에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술전시회가 그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학교에서는 미술반 학생들에게 조퇴까지 허용하며 그림을 그리게 했다. 나는 그날도 화판과 이젤을 들고 학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교외로 나갔다. 나는 작업할 때 남이 들여다보면 그림이 잘 되지 않는 성향이 있어 인적이라곤 없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로 갔다. 거기에서 이젤을 펼쳐놓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억이 70세가 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풍광을 화폭에 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붓을 휘두르면서 나는 천지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배도 고팠고 바람이 불어 추위에 덜덜 떨었지만 그린다. ‘행위’를 통해 ‘나’는 없어지고 내가 직접 대상이 되거나 혹은 나와 대상 사이를 떠다니거나 하는 신기한 체험을 하였다. 아니 신기했다기보다는 그 일치의 감정이 너무 행복했다. 지금도 나는 그 장면만 떠올리면 바로 “천지와 나는 한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여기에 교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이 마음 놓고 그림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학교 당국의 배려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학생을 방치하여 사고라도 나면 학교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술 교사가 나서서 이것 그러라 저것 그러라 하거나 그림이 어떠니 저떠니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은 그저 교사가 주무르는 밀가루 반죽이 된다. 진정으로 학생에게 생태 감수성을 함양케 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연 속에 아이들을 풀어놔야 한다. 리스크가 클수록 깨달음의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의 몸이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때로는 인식의 차원마저 달라지기도 한다. 그날 그 장소에 그림을 그리러 나간 것은 학교 당국에게도 나에게도 계획에 없었다. 천지와 나의 성정이 그리로 이끈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우연’이다. 점심과 저녁 사이 대여섯 시간 동안 나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 있었다. 휴대폰도 없었고 수중에 간식은 물론 먹을 물도 없었다. 근처에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인간 사회에 의존할 아무것도 없었기에 나는 온전히 자연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이름으로 이런 형태의 방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 교사는 물론 학교 당국도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몇 시간 동안의 완벽한 고립을 통해 나는 자연과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태 감수성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우연’을 교육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학부모의 동의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학부모들은 이런 식의 교육은 동의할 수 없다고 대부분 말 할 것이다. 사실 학부모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학교 환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위험과 우연이 숨어있다. 학교 폭력이나 왕따, 수치심이나 모욕감, 상대적 박탈감,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부모 모르게 학생들은 망가지고 있다. 학생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은 우리의 학교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를 자연에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반대만 한다면 생태 감수성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교실에서 또는 교사의 인솔 아래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태 교육은 학생들의 생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 솔직히 말해 연말에 교과 프로그램 이수 평가 항목에 결재 도장 찍은 것 외에 아무런 변화도

생태 감수성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우연’을 교육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학부모의 동의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생태 또는 생태 감수성은
 지구라는 행성에 몸 붙여 사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큰 공부(大學)이다.

일어나지 않는다. 필자 자신을 되돌아 보아도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1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생물 과목이 있었지만 ‘생명에 대한 인식’ 또는 ‘생태 감수성’에 관한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지식’만 쌓였을 뿐이다.

겉보기에 안전하다고 억압적 교육환경에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생태 감수성은 단지 자연과의 관계 뿐 아니라 타인과 교육환경과의 관계마저도 생태적으로 바라볼 때 길러질 수 있다. 이 관계망을 전문용어로 Human Ecology라고 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생태 또는 생태 감수성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과목이 아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몸 붙여 사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큰 공부(大學)이다. 진정으로 해야 할 큰 공부는 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만든 가장 반생태적 제도인 대학입시(大學入試)에 올인하는 지금의 교육환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환경교사의 환경교육

푸른꿈고등학교 고 성 원 환경교사

2024년의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기후 정책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라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1.52도 상승했다고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C3S)가 발표했다. 세계는 2015년 유엔 파리 기후변화 총회를 통해 이 지구 온도의 상승폭이 이번 세기 내내 1.5도 내로 억제되어야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지구온난화 극복의 목표치로 합의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 지구 가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후의 변화가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아 기후 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의 온도상승을 막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표현을 들곤 한다. 하지만 미래세대라고 불리는 10대들은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 뜨거워져 가는 지구에서 살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시민 기후소송의 원고가 되어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 곧 헌법에 따라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푸른꿈의 교육이념...생태교육

푸른꿈은 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교육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학교이다. 생태(生態)라는 단어는 자연의 기본이 되는 생명체의 집단이 생존을 유지해 가는 데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한자를 풀이해 보면 生(날 생), 態(모양 태, 태도 태)로 생물이 자연계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교육이란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다. 생태교육을 통하여 생태계 지식 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느끼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을 이해하고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푸른꿈은 생태교육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을 하고자 하였다. 생태뿐 아니라 생활, 문화 교육과 함께 공동체 교육을 지향하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주체, 자율 교육, 노작 교육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교육과 환경교사

생태교육을 하는 푸른꿈에서 환경교사는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교과목의 교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푸른꿈의 여러 교과목 중에 한 과목의 교사이다. 생태교육이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그건 환경교과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푸른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하고 노력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교육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교과는 아이들과 함께 푸른꿈이 지향하는 교육을 하는 가운데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변화, 생물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목으로 환경교과는 꼭 필요한 교과이다.

푸른꿈에 처음 왔을 때 생태라는 단어는 학교에서 그리고 환경교사인 나에게 뚜렷하지 않고 흐릿하게, 주변에 있지만 잡히지 않는 안개 같은 존재였다. 푸른꿈에서 생태교육은 때로는 대답하는 첨예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담고 있기도 하고, 자연의 한계와 관련된 지배 담론을 관철하려는 헤게모니, 그리고 대안적인 생태 사회를 형성하려는 다양한 실천들을 의미하는 생태주의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도 누군가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모두가 동의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꿈은 생태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경교사의 환경교육

환경교육은 나와 환경과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환경의 연관성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현상을 느끼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부 시절 배웠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문구가 환경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목표이고 과정이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푸른꿈에서의 환경교육을「지.지하는 환경교육」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학교는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과거의 경험만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힘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른꿈의 환경교사가 환경수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교육이다. 나와 자연의 연관성을 알고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생태적 감수성이 전혀 없고, 자연과 함께 못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하며 자립·자족할 수 있는 생태적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인 ‘생태맹’이 아니라 ‘생태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른꿈에서 환경교사가 환경수업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푸른꿈의 환경교육

최근 우리는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그것들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가 겪은 위기는 무엇이고 왜 그것들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2021년 미국과 캐나다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을 겪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를 경험했다. 이와 함께 찾아온 슈퍼태풍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위기 상황은 왜 찾아오게 된 것일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만 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다.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현상들의 조각을 맞추며 우리 앞으로 다가온 환경의 변화, 지구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후의 모습을 예측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150년 전 인간이 발명한 가장 혁신적이며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플라스틱이 150년이 지난 현대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물질이 되었다. 바다로 간 일회용 빨대는 한 번도 빨대를 사용해 본 적 없는 거북이의 코에 끼워져 그들을 힘들게 했고 한 번도 써 본 적 없는 그물을 뒤집어쓰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북이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또한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은 작은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 작은 생물들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 해양 생물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어느새 내 주변으로 다가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많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푸른꿈에서 환경수업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가려고 한다. 푸른꿈에서 환경교육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감수성-환경지식-시스템사고-환경정의-행동과실천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감수성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인식하고 나와 주변의 환경이 연결되어 있고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내 주변의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환경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기 초 학생들과 환경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 자연을 느끼고 나와 둘러싼 주변을 인식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유이다. 환경 지식은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다양한 환경관련 정보를 의미하며 과학적 원리부터 사회구조와 역할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사고는 하나하나의 환경 지식의 연관성을 찾고 복잡성을 띠는 환경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 위기(기후변화)를

고민하며 산업혁명, 화석연료, 에너지사용, 소비 습관 등 다양한 사건과 지식을 결합하는 사고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식을 자기 삶과 연결 지어 보고 그것들을 연결하여 고민해 보는 단계이다. 환경정의는 나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환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판단해 보는 단계이다. 나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의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고민한 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떻게 연대하여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마지막 단계가 행동과 실천이다. 환경감수성을 시작으로 환경지식을 배우고, 지식의 조각을 결합하고 사고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면....마지막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주제나 활동이 있다면 함께 수업을 디자인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푸른꿈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은 생태교육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생태교육의 일환이다.

푸른꿈의 이후의 삶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를 문맹,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컴맹이라고 한다. 컴맹과 문맹은 교육과 연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과 관계 맺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우리 주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생태맹이라면 앞으로 찾아오는 결과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을 읽지 못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맹의 경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생태맹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그 모습은 부끄럽거나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 문맹이나 컴맹은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생태맹’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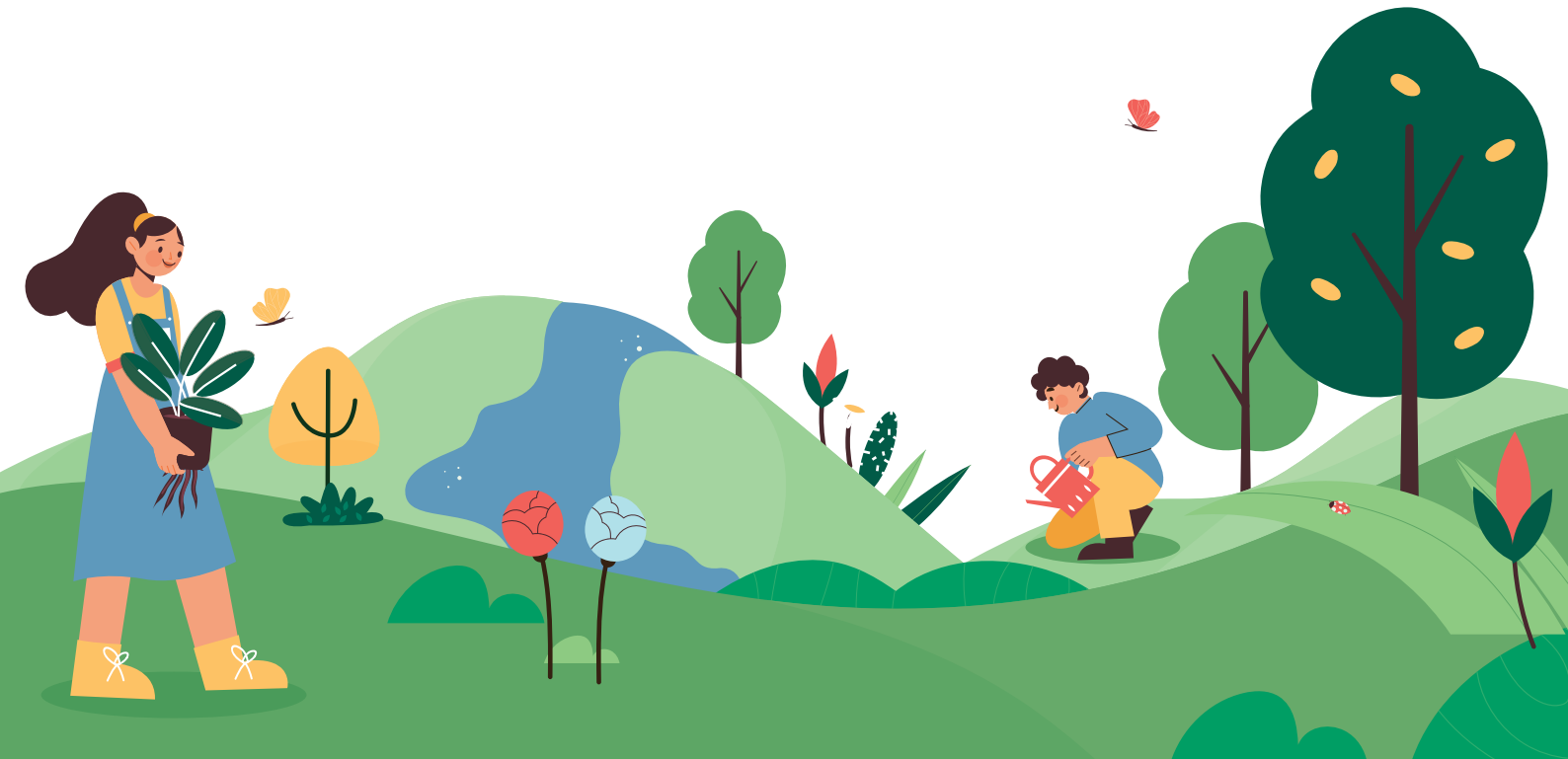
푸른꿈의 환경교육은 교실에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푸른꿈의 3년은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푸른꿈에서의 연습은 그동안 인식하지도 못했던 주변에 대해 인식하고 생태맹을 극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적어도 푸른꿈에서의 배움은 졸업 후에 광화문 거리에서 기후정의를 함께 외치고, 자신들이 배우고 실천했던 것들은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하기 위해 푸른꿈에서 진행되는 환경캠프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얼마 전 졸업생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데 궁금한 게 있어 연락했다며 기후 위기에 대해 발표를 하고 싶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함께 수업 듣는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기후변화 강의를 들으며 자신이 푸른꿈에서 배웠던 것들은 지금의 지구의 변화가 심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데 그것에 비해 강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강의를 들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강의내용에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배움을 다시 꺼내어 확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푸른꿈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삶에 대해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향을

알려주고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다. 자신의 배움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푸른꿈의 교사로서 그리고 환경교사로서 희망하는 모습이다. 그런 아이들은 때론 정제되어 있는 나에게 큰 자극이 되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생태교육과 환경교육

생태교육이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환경교사로서 구체적인 실천 능력에 대해 생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함께 실천하고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교육활동이고 결과일 것이다. 푸른꿈에서 생태교육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생태, 생태철학, 생태주의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푸른꿈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들을 교육의 현장에서 녹여내는 것이 생태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푸른꿈의 환경교사로서 생태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환경교육을 통해 나와 환경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게 함으로 생태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후로도 생태, 생태철학, 생태주의에 대해 여러 질문이 있을것이고 푸른꿈에서 생태교육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푸른꿈의 환경교사로서 그것들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교육의 지향점(목표)을 향해 고민하고 노력하리라는 것이다.



행동하는 실천가를 기르는 교육

이 항 근 양육자

(11기 이한결 父, 전 전주교육장)

1. 인간과 교육

교육은 지구에서 출현하여 소멸되거나 삶을 지속하는 온갖 생명체 중에서 인간을 가장 지혜롭게 진화시키며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게 한 힘이다. 수 억 종의 생명체들이 단지 앞 세대의 생물학적 유전과 생존 수준의 지식을 본능적으로 이어갈 때 인간이 만들어 낸 커뮤니티는 지식의 전달을 지혜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성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성공한 사실상의 유일한 개체가 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각각이 행하는 교육의 편차에 따라 변화 발전해 온 국가나 도시,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자신들의 미래 사회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제 또는 커뮤니티로서 교육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을 하느냐 즉 어떤 아이들로 만들 것인가의 철학과 전략에 따라 아이들의 삶이 규정되고 장차 우리가 어떤 국가나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인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의 변수가 되지 못했던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지구적 재난이 상수가 되어버린 시대를 맞으며 이 당위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는 고통스러운 의문이 된다.

지구나이 45억년 동안 살아온 생명체 중에서 겨우 30만년 정도의 나이를 가진 늦둥이 생명체인 인간의 탐욕스런 지배력이 모든 생명체의 재앙이 되어버렸다(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40억 년 전 빅뱅으로 물리학적 차원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원자, 분자의 화학적 결합 시대를 거쳐 마침내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류-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이 7만 년 전부터라 쓰고 있다)

인간의 포식과 포만을 위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그 탓에 생기는 홍수와 가뭄, 산불에 멸종되는 것은 죄 없는 못 생명체들이다(물론 인간계 안에서도 분리와 배제가 자행되었고 소외된 약자들의 삶도 다를 바 없다). 알바트로스의 내장에서도, 1만 미터 바다 속 심연에서도 플라스틱이 나온다. 이 위기는 지속적으로 심화 될 것이고 지속될 재앙 앞에 지속가능한 지구도 국가나 도시, 인류의 미래도 없다. 이제 교육은 그 사회학적 기능과 더불어 위기의 지구에서 살아남거나 지구 위기를 방어할 생존 전략으로 기능해야 한다.

현실은 안일하다. 비상시기라는 위기감이 없다. ‘고기 안 먹는 날’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이색취향으로 치부된다. 폐트병의 라벨지를 떼어내는 수고는 일부 엄마들의 수고에 그치고 만다. 북극곰의 사투나 그물에 걸린 바다 생물의 모습은 뉴스의 한 토막일 뿐이다. 임계점이 지났지만 마지노선을 만들 책임도 능력도 인간에게 있다. 그 전략적 도구가 교육이다.

2. 학교와 교육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중적, 집합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근대사회 이후 학교=배움이라는 등식은 불변의 사회적 규약이 되어왔다.

또한 이 약속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건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서건 교육은 국가의 공적 책무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빈곤국가에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대량생산에 용이한 단순 노동력의 양산을 위한 교육’,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이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개발 레토릭이 교육의 본질을 왜곡했다. 교육은 여전히 입시경쟁 체제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배움이란 곧 지식교육을 의미하게 되었다. 정치권력이건 교육권력이건 민주 혹은 진보라는 호칭 여부를 떠나 관치 공교육은 입시교육이라는 좁은 폭 안에서 움직여왔을 뿐이다.

‘학교는 죽었다’. ‘학교에 꼭 가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은 일부 각성한 활동가들이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존재 이유를 묻기 시작했고 그것이 대안학교 운동으로, 그 영향을 받은 공교육 개선의 움직임이 혁신학교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학교를 개혁해서 교육을 개혁하고 나아가 사회를 개혁하자는 꿈을 말했고 실천하고자 했다.

다시 유발 하라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글은 사이보그(알파고)를 만들고 죽음의 문제조차 생물학의 문제가 아닌 기술의 문제로 풀어가려는 회사(켈리코)를 운영하며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 하며 무책임한, 위험한 존재로서의 신들의 탄생’이고 결국은 사피엔스의 종말이다’.

유인원 시절부터 7만년을 진화하며 사피엔스의 시대를 열어 준 인류 조상들의 숭고한 수고로움이 100살도 살지 못할 금세기 인류에 의해 소멸된다는 끔찍한 예언이다.

이런 불길한 예언을 반대로 짚는, 지금까지 그래온 조상들처럼 미래 사피엔스들의 오랜 조상으로 남기위해 “나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흡족해 하며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을 명제로 삼고 그 길을 향한 실천적 노력이 교육의 길이고 학교의 몫이다.

3. 푸른꿈 고등학교에 대한(위한) 몇 가지 바램

푸른꿈 고등학교는 교육의 대안을 찾으려 만든 대안학교다. 모든 대안학교의 설립 이유가 그렇듯 공교육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의 상을 찾고자 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었다. 개교 25주년이 말해주듯 1990년 말 시작된 전국적 대안학교 운동의 효시에 가깝다. 인가대안학교라는 체제로 인해 학교철학을 구현하려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입시교육 중심의 공교육에 영감을 주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은 분명하다. 불행스럽게도 공교육체제 안에서의 혁신학교 운동이 철지난 유행처럼 소실되어 가는 현실이다. 여전히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개혁의 실천가를 육성하기 바란다.

개교 25년. 푸른꿈 고등학교의 수고로운 역정에 감사하며 새로운 여정을 위한 질문을 한다. 푸른꿈 고등학교가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학교이며 환경생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선도한다.”는

지향과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한가?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학교철학과 지향은 학교구성원들에게 인지되고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과정과 수업, 수업 외 활동들의 통합적인 연계는 학교철학의 구현을 향해 작동하는가? 또한 학교 밖 배움까지 끌어당겨 재구성되고 있는가?

25년 교육활동 평가와 성과 중에 졸업생들의 진학과 직업, 사회활동 안에 학교철학이 실천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나 사례연구는 있는가?

지구재앙의 시대를 만나며 주체적 역동성으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학생들의 배움이 살아갈 삶과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교육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 학교의 교육실천이 타 학교에 영감을 주고 실천의지를 작동시키는 생태 운동적 책무를 갖고자 하는가?

내 아이를 다시 보낸다면, 보낼 이유가 되는 푸른꿈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 몇 가지를 해본다.

첫째, 상호부조론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주의 철학이 분명하기를 바란다.

러시아의 동물학자 케슬러는 1880년 ‘상호부조의 법칙에 관하여’라는 강연에서 ‘자연에는 상호투쟁의 법칙 이외에도 상호부조의 법칙이 존재한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종이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부조의 법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케슬러의 강연에서 영감을 받은 P.크로포트킨은 자연 속에서의 수많은 관찰을 통하여 다양한 부류의 동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다투고 몰살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종이나 같은 집단에 속한 동물들끼리는 그러한 싸움과 몰살에 상응할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서로를 부양하고 도와주며 보호해줌을 실증적 사례로 주장했다. 그의 책 ‘만물은 서로 돕는다’에서 그는 이러한 사회성을 자연법칙이라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같은 종인 인간계에서조차 경계를 허물고자 한, ‘세계화’라는 통합의 언어가 차별과 배제, 격차와 약탈이라는 자본의 언어로 구현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계화’란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편견과 갈등으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전 지구인이 ‘차이의 존중’과 ‘다양성의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인류, 함께 사는 지구촌이 되자는 평화의 언어로 학습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 이제 지구재앙의 시대를 맞으며 상호부조의 사상이 전 지구적 생명체를 향한 동료성으로 발현되는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푸른꿈 고등학교가 그 선구적,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철학에 동의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입시 방식은 어떻게 생각해본다.

둘째, 아이들이 생태환경의 지식 습득에서 나아가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 실천가로 성장하기 바란다.

‘학습(learning)’이란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교육(education)’이란 학습자들이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이다. ‘훈련(training)’은 교육의 한 종류로서 특정한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이다. 학교교육은 교육이지 훈련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지만 활동가는 운동에서의 선수와 같다.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는 훈련을 통한 선수가 되어야 한다. 생태에 대한 학습과 실천은 학습자의 취사선택 문제가 아닌 필수선택의 문제다. 모두가 참여한다는 전제로 체계화해야 할 학습 프로그램이며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되어야 한다.

2020년 19명의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기후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엄마가 아기를 대신한 소송 등이 이어졌고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감축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위헌인지 여부였다. 올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다는 판결을 했다. 동아시아 최초이면서 전 세계에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활동가가 된다.

셋째, 자치와 협치의 학교리더십을 바란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뿌리와 가지와 잎이 위계를 가지며 기존의 수립된 계층적 질서를 쉽게 바꿀 수 없는 수목형 사회와 사고를 접고 현대적 사유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리좀(Rhizome)이라는 철학 용어를 통해서다. 「리좀」은 가지가 흙에 닿아서 뿌리로 변화하는 지피식물들을 표상한다. 수목형과 다르게 뿌리가 내려 있지 않은 지역이라도 번져 나갈 수 있는 번짐과 엉킴의 형상이다. 잔디 뿌리나 고구마 덩굴일 수 있고, 서로 떨어져 있던 점과 점들의 연결체이다. 권력조직과 예술, 학문, 사회적 투쟁 같은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하여 한 덩어리로 만든다(들뢰즈와 가타리의 공저 『천 개의 고원』 인용).

조직은 슬로건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목표와 지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역동적 참여가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다.

푸른꿈 고등학교는 제도와 규율로 리더십을 보장 받는 행정조직이 아니다. 이미 행정조직의 리더십도 ‘부여됨’ 보다는 ‘만들어감’의 시대로 바뀌었다. 학교의 리더는 학교장이지만 철학을 구현하는 일은 학교 구성원 전부의 역할을 통해서이다. 협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학교 전체가 교육목표 구현과 정체성의 수립을 위해 움직이는 과정과 결과로 확보되는 것이 학교리더십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 아이들 스스로가 학교에 오는 이유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성이다. 이 자발성은 학교가 자신의 삶에 유용한가라는 질문과 답으로부터 나온다. 학교와 교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효능감, 학교의 효과성이다. 그 답으로 학교가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학교 리더십’이다.

학교에서 학습된 리더십으로 각자가 형성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한다. 들뢰즈가 사유방식으로 주장한 「리좀」과 같이 교육과정의 자기주도성을 키워 자신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학교 안팎과의 관계를 통해 실천적 네트워크를 쌓는 경험을 축적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자치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통한 마을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갈 곳이 없어서 오는 학교가 아닌 가야할 이유가 분명한 아이들이 찾는 학교, 그것이 아이들과 교사의 자부심이 되는 학교, 생태주의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학교, 행동하는 실천가를 키우는 학교, 대안학교의 대안을 보이는 학교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튼베리를 위하여



푸른꿈고등학교 교사 이 무 혼

97년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로 기억된다. 푸른 하늘과 다르게 교육계에서는 성적 지상주의에 몰려 연일 슬픈 소식이 TV 전파를 타고 들려온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 답은 사회의 학벌지상주의, 경쟁, 경제성장의 대세적 흐름과는 달리 반대로 생각하면 명료하다. 그래서 99년 교육을 생각하는 전·현직교사 그리고 얼굴 없는 다수가 만들어 가는 곧 시민들이 모여 세운 학교가 푸른꿈고등학교(이하 푸른꿈학교)이다. 소위 민립(民立)고등학교인 셈이다. 당연히 초창기 환생교도 그 후원자가 되어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 학교법인 이사장은 김정옥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고 이사 중 한 분은 한때 환생교 회장을 맡은 안상기선생님이다. 야생초편지로 유명한 황대권선생님도 법인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99년 개교 당시 사회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이란 용어는 쓰지 않아 당시 학교 리플렛에는 ‘**생태이념을 교육적으로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표기했다. 99년 개교 당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자연을 닮은 사람**’이라는 **교훈**과 함께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교육목표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용감한(?) 의제이기도 했다.

올해로 개교 26년을 맞이하는 푸른꿈학교의 생태전환교육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해 왔다. 먼저 교사들과 재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깊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를 위해 푸른꿈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운영하고 있다.

먼저 푸른꿈학교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다양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설,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생명평화 프로젝트 주간 운영, 학생회 주관으로 3년째 이어지는 전교생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것, 2회째 되는 일반 중학생 대상으로 환경캠핑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푸른꿈학교의 생태전환교육의 목표는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업,
 ‘자연을 닮은 사람’이라는 교훈에 맞는 ‘실천하는 푸른꿈인’,
 환경 갈등 상황에서의 가치 판단과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사고와 사회참여에 기여,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생태교육에 대한
 이해와 환경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우리학교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교사가 함께하는 최원형선생 환경특강, 방학 중 환경 독서 및 환경 다큐를 통해 점진적으로 교사들은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학생들의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타교과 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타교과 융합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각 교과수업을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교육주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환경교과와 타교과 융합수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의 연수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푸른꿈학교의 **생태전환교육의 목표**는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업, ‘자연을 닮은 사람’이라는 교훈에 맞는 ‘실천하는 푸른꿈인’, 환경 갈등 상황에서의 가치 판단과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사고와 사회참여에 기여,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생태교육에 대한 이해와 환경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이는 재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푸른꿈 **학교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철학의 이해와 생태농업, 가정과학 등 의식주와의 연계수업, 환경갈등 상황의 이해와 탐구 및 가치 연계를 위해 김익중 교수의 ‘핵 발전소 없이 살아가기’, 최원형선생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환경특강’, 교내와 지역사회의 환경 쟁점에 대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반딧불이 살리기, 축제기간에 플리마켓 운영, 용담댐과 대청댐의 상수원이 되는 구량천, 남대천에 EM공 던지기 등을 하고 있다. 교내 환경동아리 ‘환생’은 친환경세제를 만들어 교내에서 사용하고 교내 캠페인을 주도한다. 교내에 천문대를 설치하여 천체 관측프로그램을 방과후에 하고 학교숲 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숲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환경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환경교사를 정교사로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1학년은 ‘삶은 환경’이라는 주제로 주 2단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한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2학년에서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주 2단위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푸른꿈학교는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내 환경 캠페인을 기획·운영하여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이벤트와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수업과 연계된 방과후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환경 동아리 활동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3학년에서는 선택수업으로 '지속가능발전탐구'라는 주제로 주 3단위 심화과정의 환경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푸른꿈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교내 탄소배출원을 탐색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도한다. 또한, 푸른꿈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동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독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급식실내 비건인을 위해 별도의 메뉴를 준비하고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사용한 식판은 자신이 설거지 함으로서 생활교육과 연계된다.

푸른꿈학교는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내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이벤트와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수업과 연계된 방과후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환경 동아리 활동도 확대하여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문화 조성은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자부한다.

푸른꿈학교의 **생태전환교육은 늘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이상적인 가치와 이념에 때론 교직원과 학생들은 자조적인 표현을 한다. **“우리가 무슨 환경학교야~”** 그러나 이러한 물음 자체가 푸른꿈에서 진행되는 환경과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나름 긍정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푸른꿈은 대한민국의 튼베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 지금 푸른꿈 재학생들과 졸업생이 대한민국의 튼베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24년 907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는 학생회와 재학생들에게 무한응원을 보낸다.

<설문 분석자료>

시민 및 타학교 교사 대상 설문내용

Q1. 귀하의 사는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1) 전북지역 2) 전북 외 지역

Q2. 귀하의 연령대를 알려주십시오

-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Q3. 귀하는 푸른꿈고등학교를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이름은 들어봤다 3) 모른다

Q4. 푸른꿈고등학교는 다음중 어떤 학교일까요?

- 1) 일반고등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계열(고등학교 학력 인정) 3)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

Q5. 주변에 푸른꿈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나 관련 가정(지인)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Q6. 푸른꿈고등학교는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환경부가 선정한 “환경교육우수학교”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Q7. 만약 푸른꿈고에 자녀나 아시는 학생이 입학한다면 다음 중 어떤 경험을 하게되길 바라시나요?(택 3)

- 1) 생태환경 중심 수업 및 생활 갖기
2) 책 읽기 등 독서교육을 통한 인문학적 교양 수업 (북독, 인문학 캠프, 통합기행 등)
3) 교사들의 따뜻함과 상호 소통이 원활한 경험
4)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경험(기숙사 생활, 식구총회 등)
5) 뜻이 맞는 친구들과의 생활 경험
6) 기타()

Q8. 향후 푸른꿈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학교가 좀 더 분명하게 중점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되는 것은?(택 2)

- 1) 기초학력 2) 생태환경 교육 3)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적 역량
4) 음악/미술/체육 예체능교육 5) 인문학적 소양 및 문해력 강화 6) 기타()

Q9. 푸른꿈고등학교가 다음 중 어떤 강점이 시민들에게 가장 의미있게 다가올까요? (택 2)

- 1) 교사전문성 2) 환경중심 교육과정 3) 민주적 학교운영 및 학생자율성 보장
4) 다양한 교육과정 5) 공동체의 따뜻함 6) 기타()

Q10. 푸른꿈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택 2)

- 1) 특색있는 교육과정 강화 2) 학교 교육 활동 PR 및 홍보(수업 활동, 졸업 후 진로 결과 등)
3) 교사 전문성 함양 4) 환경 단체 등과의 교육과정 협력 5) 기타()

Q11. 푸른꿈고등학교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양육자 및 졸업생 대상 설문내용

〈양육자〉

Q7-1. 푸른꿈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양육자로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다 5) 불만족한다

Q7-2. 교육과정에 대해 양육자로서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Q8. 푸른꿈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녀가 가장 많이 변화/성장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 1) 생태환경 중심 생활 방식
2) 책 읽기 등 독서교육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3) 자신의 삶에 대한 독립심 및 자존감 회복
4) 사회문제에 행동하는 공동체 역량
5) 뜻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
6) 기타 ()

공통

Q9. 향후 푸른꿈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학교가 좀 더 분명하게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택 2)

- 1) 기초학력 2) 생태환경 교육 3)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적 역량
4) 음악/미술/체육 예체능교육 강화 5) 인문학적 소양 및 문해력 6)기타()

Q10. 푸른꿈고등학교의 가장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택 2)

- 1) 교사전문성 2) 환경중심 교육과정 3) 민주적 학교운영 및 학생자율성 보장
4) 다양한 교육과정 5) 공동체의 따뜻함 6)기타 ()

Q11. 푸른꿈고등학교의 가장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2)

- 1) 교사전문성 2) 환경중심 교육과정 3) 민주적 학교운영 및 학생자율성 보장
4) 다양한 교육과정 5) 공동체의 따뜻함 6) 기타 ()

Q12. 푸른꿈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택 2)

- 1) 특색있는 교육과정 강화 2) 학교 교육 활동 PR 및 홍보(수업 활동, 졸업 후 진로 결과 등)
3) 교사 전문성 함양 4) 환경 단체 등과의 교육과정 협력 5)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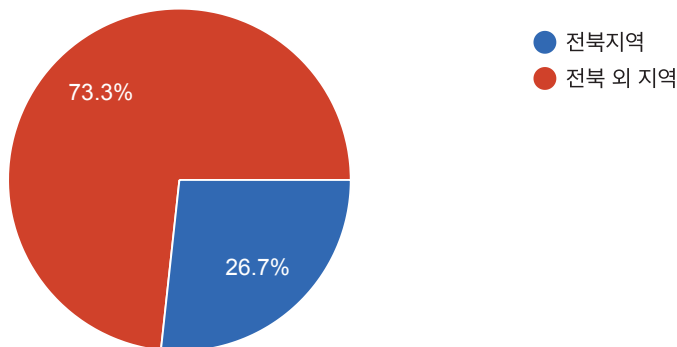
Q13. 푸른꿈고등학교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시민 및 타학교 교사 대상 설문내용 결과(응답자 232명, 설문기간 2024.10.25.~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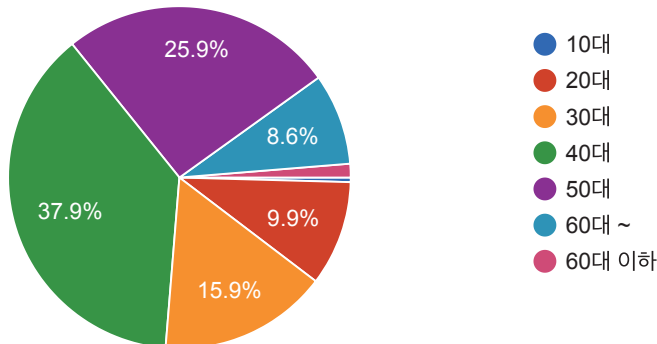
1. 귀하의 사는 지역을 말씀해주십시오

응답 2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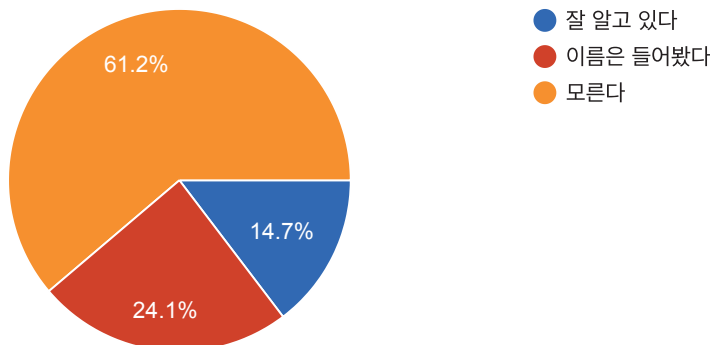
2. 귀하의 연령을 말씀해주십시오

응답 2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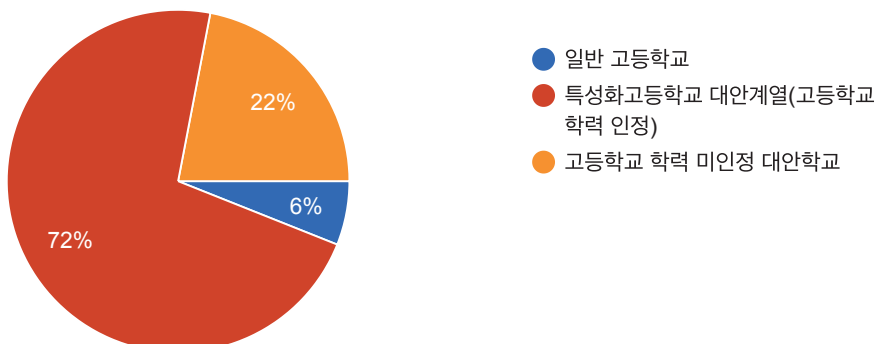
3. 귀하는 푸른꿈고등학교를 알고 계시나요?

응답 2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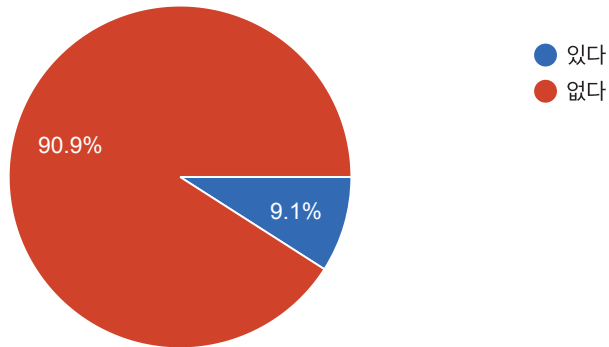
4. 푸른꿈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학교일까요?

응답 2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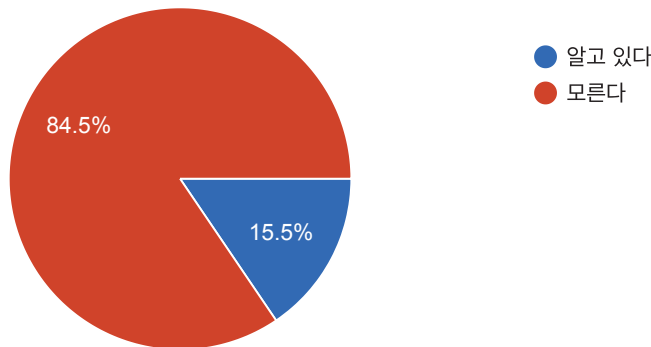
5. 주변에 푸른꿈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나 관련 가정(지인)이 있나요?

응답 2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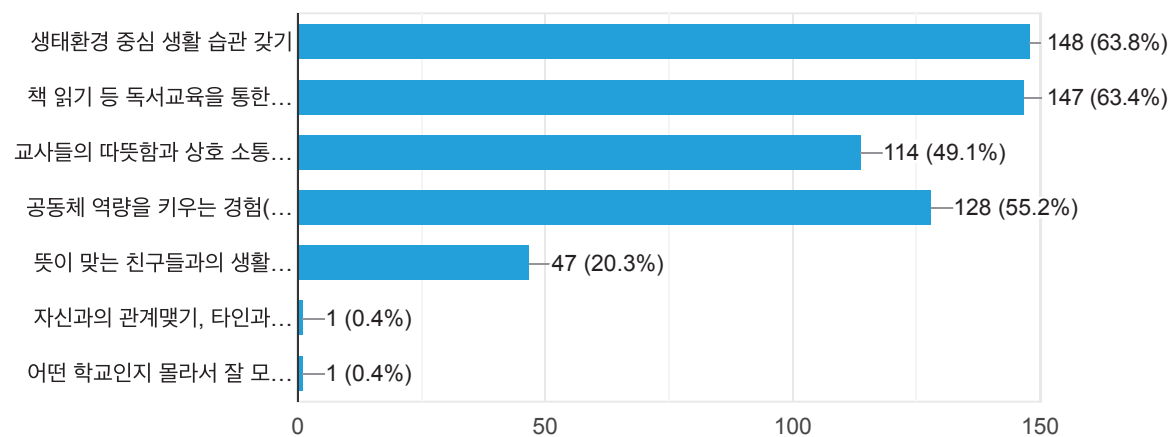
6. 푸른꿈고등학교는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환경부가 선정한 “환경교육우수학교”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응답 2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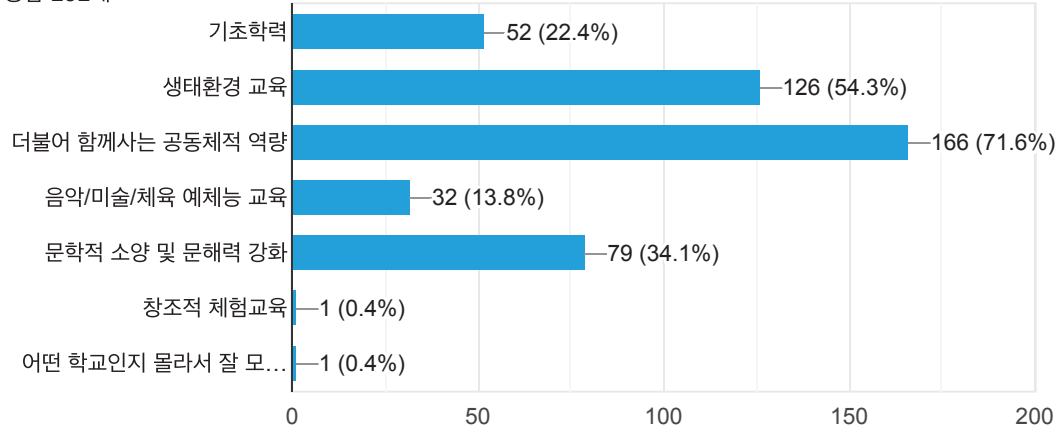
7. 만약 푸른꿈고등학교에 자녀나 아는 학생이 입학한다면 다음 중 어떤 경험을 하게 되길 바라시나요?(택 3)

응답 2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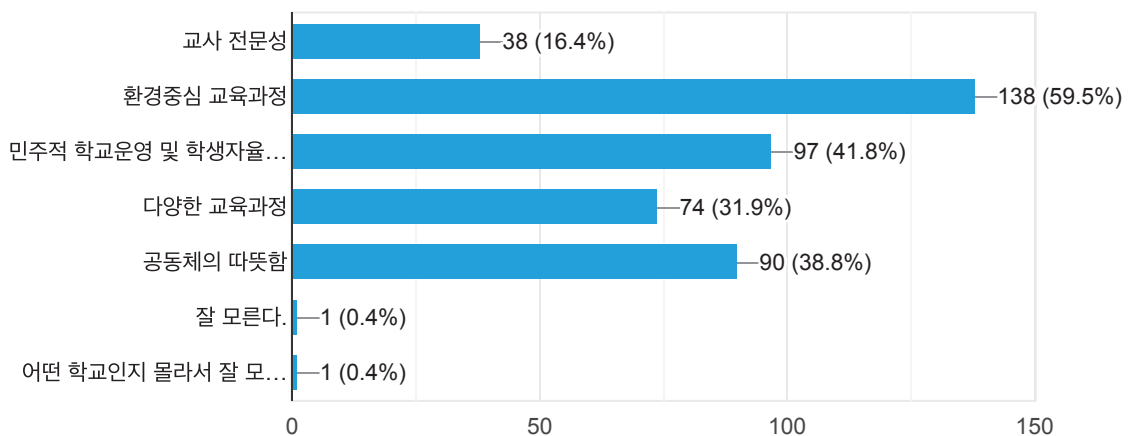
8. 향후 푸른꿈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학교가 좀 더 분명하게 중점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되는 것은?(택 2)

응답 2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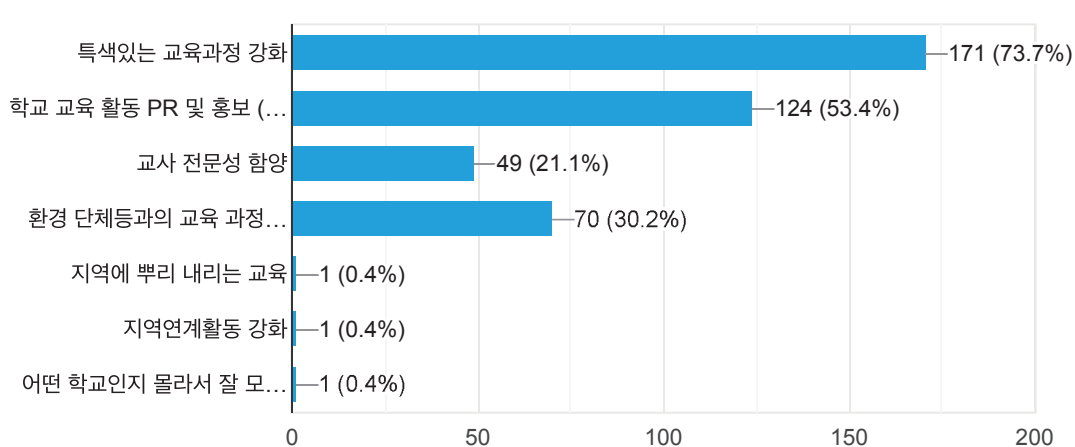
9. 푸른꿈고등학교의 다음 중 어떤 강점(strength)이 시민들에게 가장 의미있게 다가올까요? (택 2)

응답 232개



10. 푸른꿈고등학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택 2)

응답 232개



11. 푸른꿈고등학교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겨 주십시오

응답 103개

화이팅

.

푸른꿈고등학교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

앞으로 이런 학교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에 기초한 생태중심 교육 응원합니다

푸른꿈 고등학교의 장점이 더욱 많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푸른꿈고등학교에 애써주시고 계시는 선생님 항상 교사가 기뻐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기뻐하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선생님 들이 되셨음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하다는 말, 저는 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는 지적역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교사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자신이 먼저 성장하길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크게 인식되는 지금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꿈고등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언제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미래 꿈나무들을 양성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곁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교사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언제나 응원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까지 학교 경영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환경행사에서 만나는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에 푸른꿈고등학교처럼 지구 환경을 걱정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문제는 더이상 먼 미래의 고민이 아닌데, 귀한 일에 동참하여 교육하시는 푸른꿈고등학교를 응원합니다. 찬란하게 빛날 푸른꿈고등학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여 훌륭한 동량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교직원분 많습니단만, 무주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학교가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 · 양육자 · 교직원 학교교육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후위기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곳이면 입학하고 싶은 학교예요. 아이들의 인성과 다양한 경험 교육 응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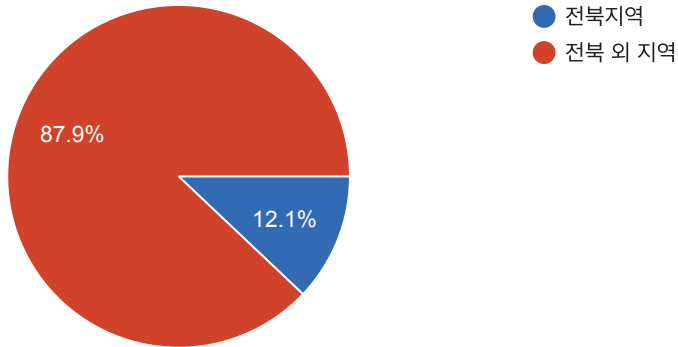
지구의 생태환경을 온전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학교이다. 푸른꿈고등학교의 힘찬 발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양육자 및 졸업생 대상 설문내용 결과

(응답자 116명 (졸업생95/양육자21) , 설문기간 2024.10.28.~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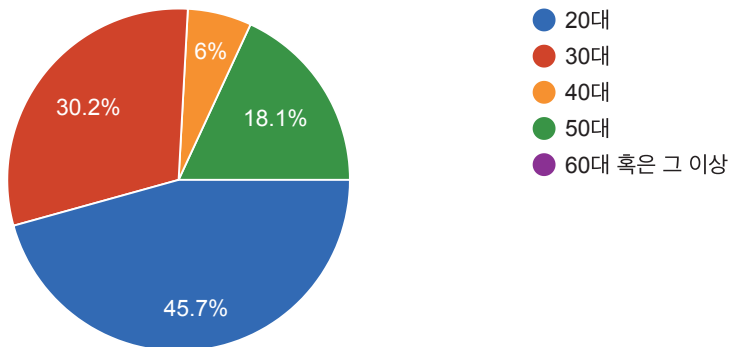
1. 귀하의 사는 지역을 말씀해주십시오

응답 1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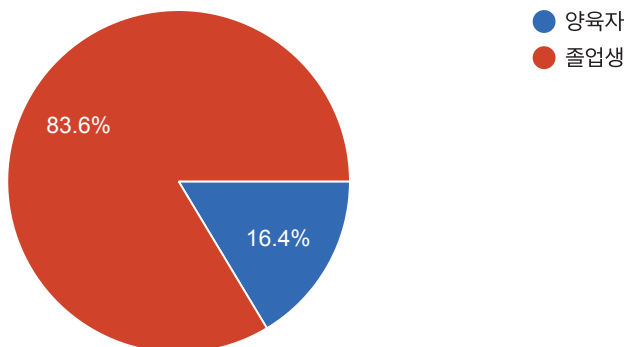
2. 귀하의 연령을 말씀해주십시오

응답 1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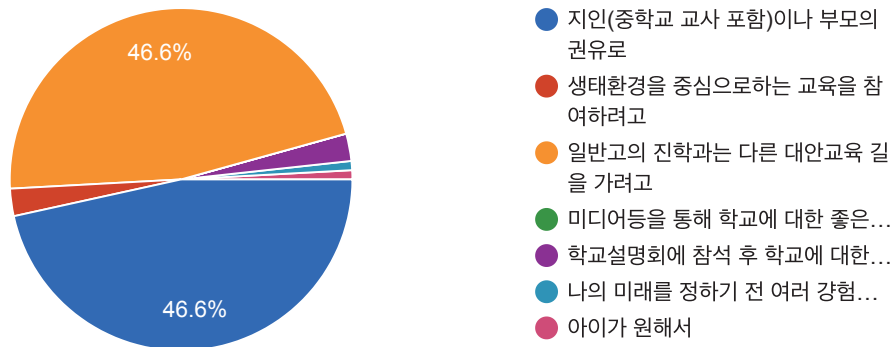
3. 귀하는 푸른꿈고등학교에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응답 1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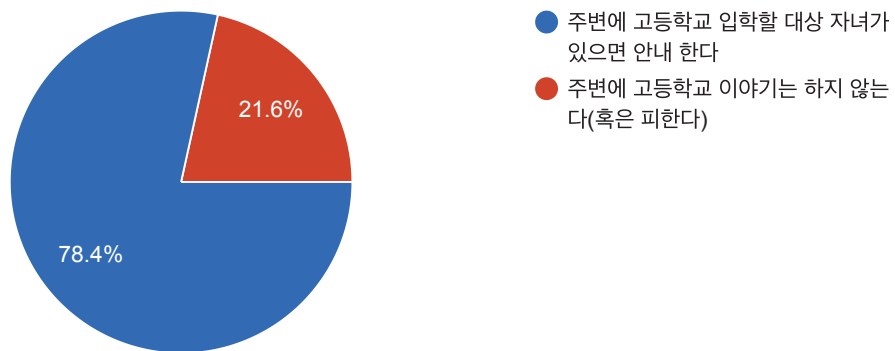
4. 푸른꿈고등학교를 선택하신 이유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응답 1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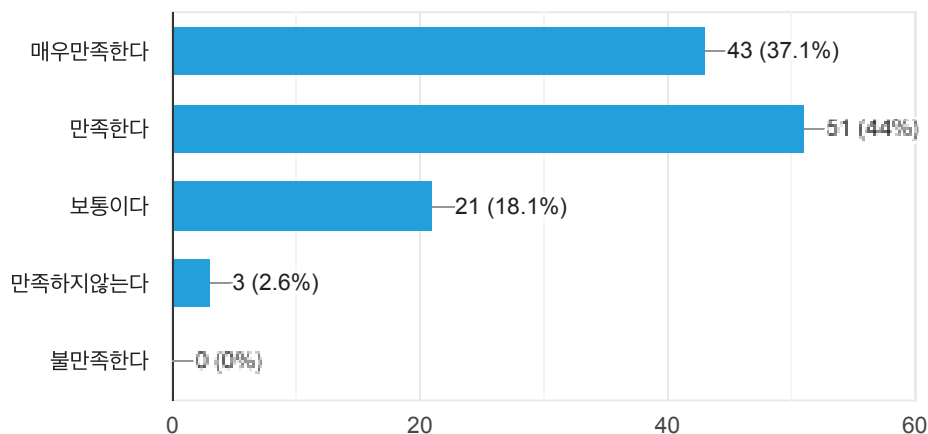
5. 주변 지인들에게 푸른꿈고등학교를어떻게 이야기 하시나요?

응답 116개



6. 푸른꿈고등학교의 선택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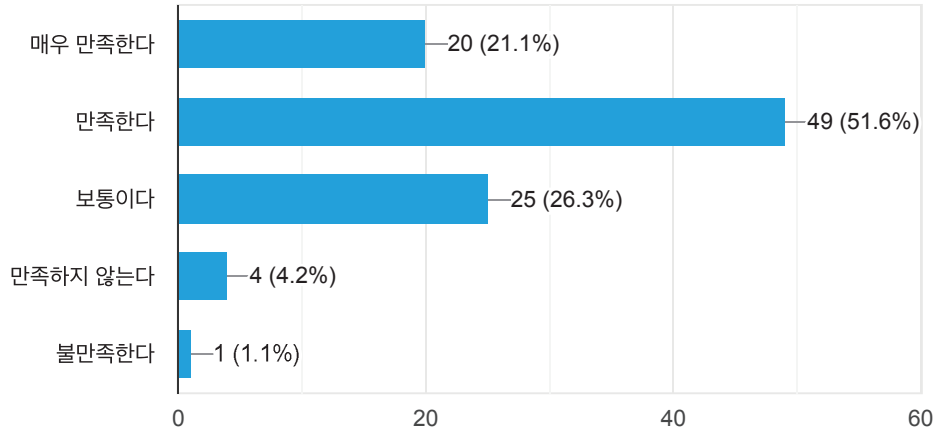
응답 116개



졸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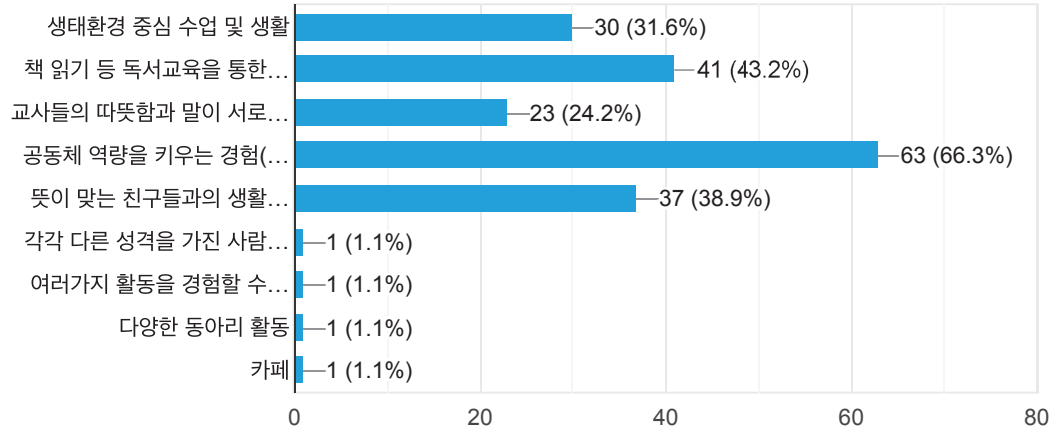
7. 푸른꿈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응답 95개



8. 푸른꿈고등학교 경험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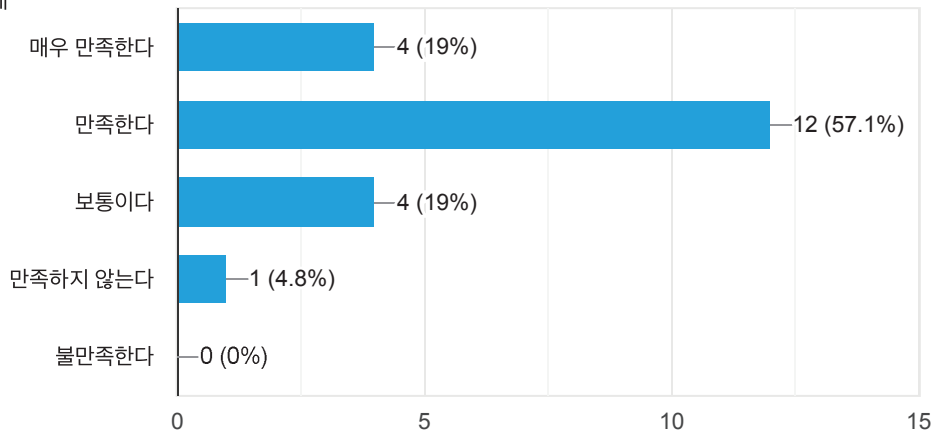
응답 95개



양육자

7-1. 푸른꿈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양육자로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응답 21개



7-2. 교육과정에 대해 양육자로서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응답 21개

없음

기숙생활로 인해 자주못봄..

.

만족합니다

책임과 권한의 적절한 배분 및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코로나 시국이라 학생의 활동이 너무 없었다

남녀학생간의 편가르기,비난으로 자녀가 힘들어하고 이성친구에 대해 강한 반발심이 생김

졸업 후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학과 과정에서 입시에 관해 너무 적게 다루는 것 같음

남 기숙사 시설 개선 되면 더 좋겠습니다

농사(밭농사)를 체험하고 먹을 거리를 만들어 먹는 일 등 좀 더 생태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학교 생활을 통해 익히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푸른꿈을 만나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졸업생의 부모입니다. 독서 및 여러 공동체 생활로 사람들 소통의 방법을 알고 책임기, 토론등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단체활동의 제한이 있었던것이 아쉽고. 오케스트라 과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 해체했다고 들었는데, 그것 또한 몹시 아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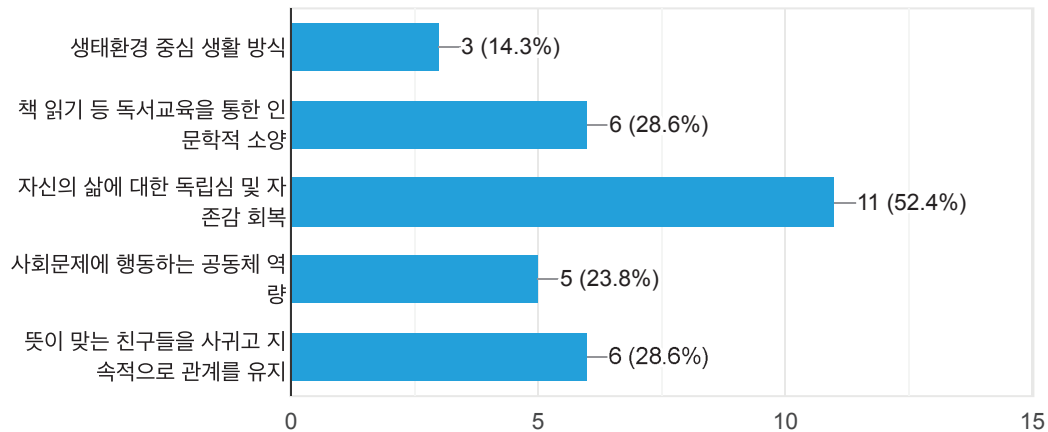
기숙사 생활도 학교생활과 함께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 아래 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유롭기도 했지만, 무질서 했다. 내 아이도 거기에 일조해서 할말은 없다.
페미니즘 등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강한 아이들의 주장이 세서, 다른 의견은 주눅들거나 외면했던 면이 있었다.

대체로 만족한다. 아쉬웠다면 정규과정외 다양한 활동이 몇 개 분야에서만 그치는 점. 독서나 생활지도 등에서 학부모의 부담도 가능한 것인데 소극적인 부분.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는 편이었다.

8. 푸른꿈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녀가 가장 많이 변화/성장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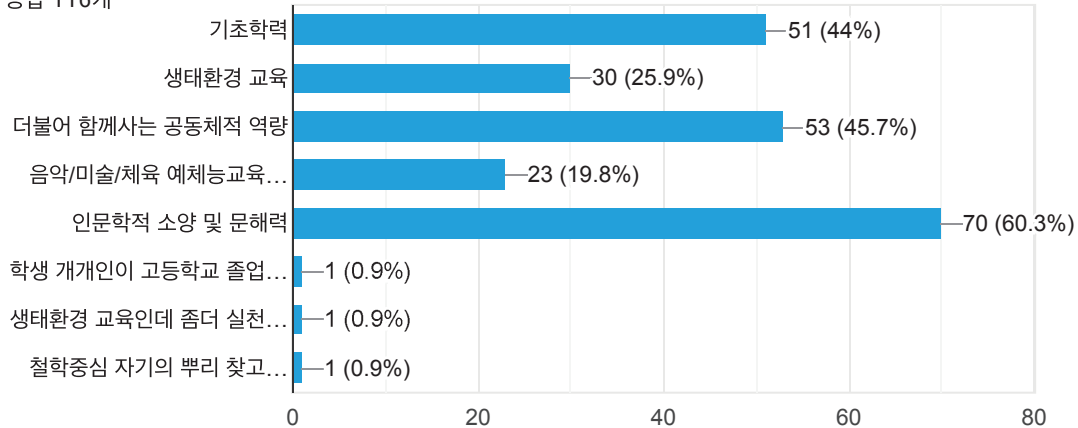
응답 21개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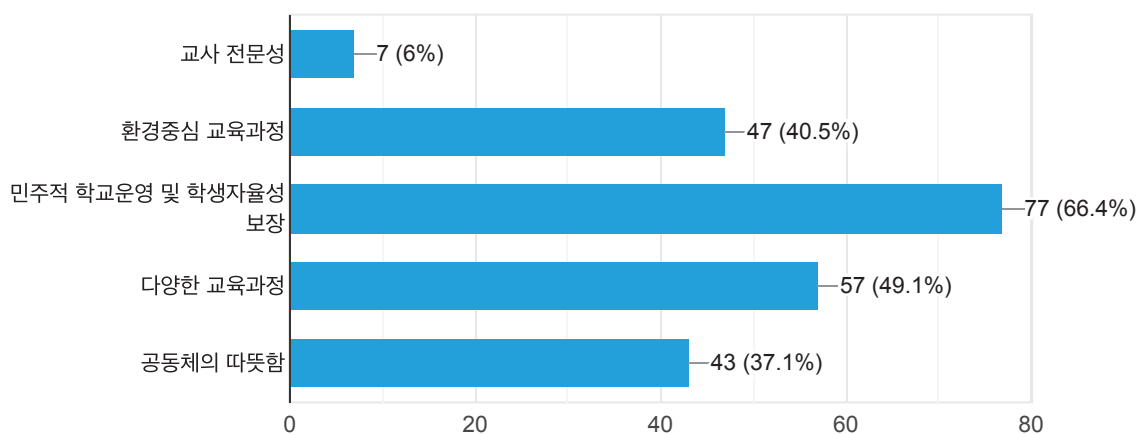
9. 향후 푸른꿈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학교가 좀 더 분명하게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택 2)

응답 1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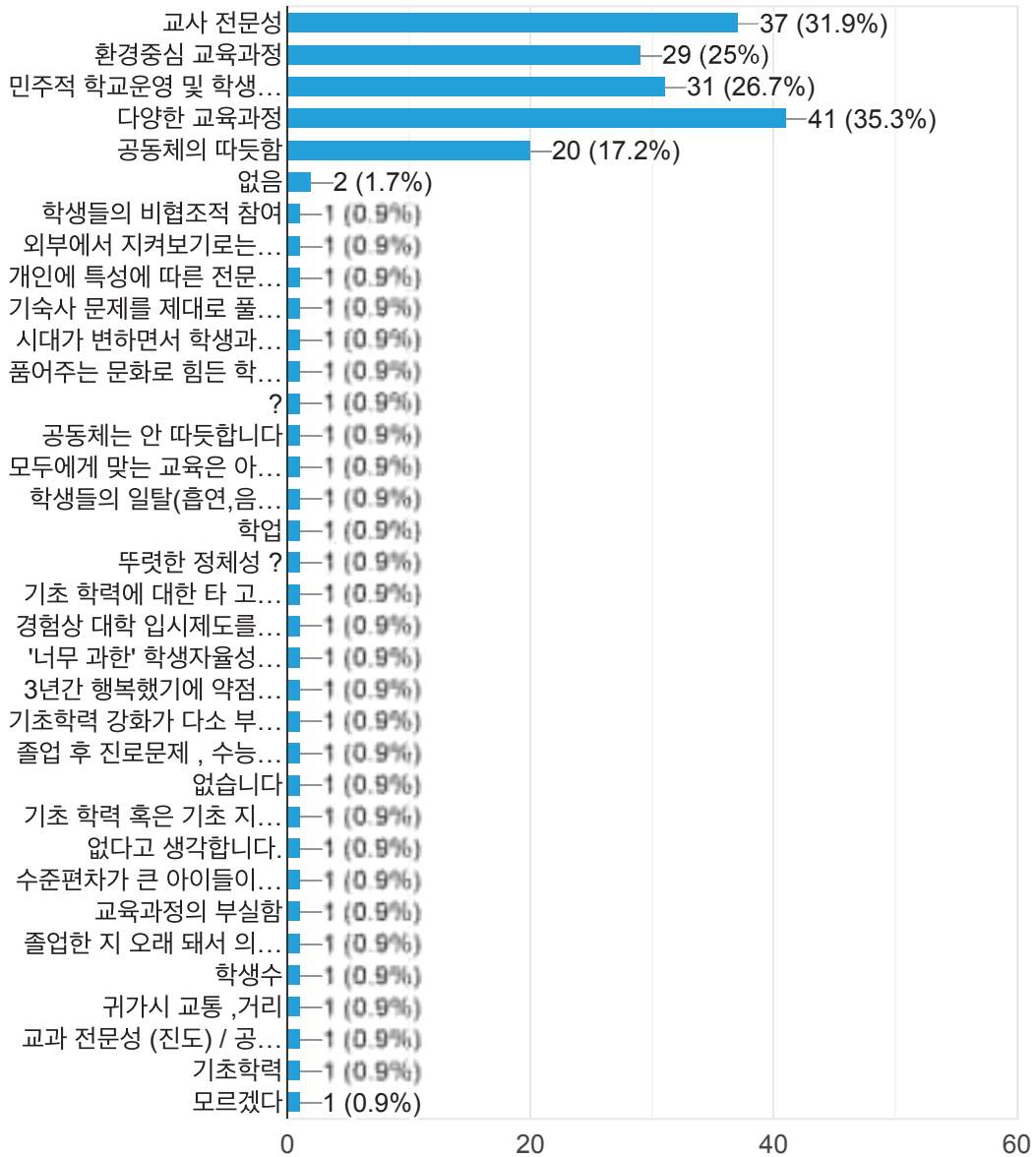
10. 푸른꿈고등학교의 다음 중 어떤 강점(strength)이 시민들에게 가장 의미있게 다가올까요? (택 2)

응답 1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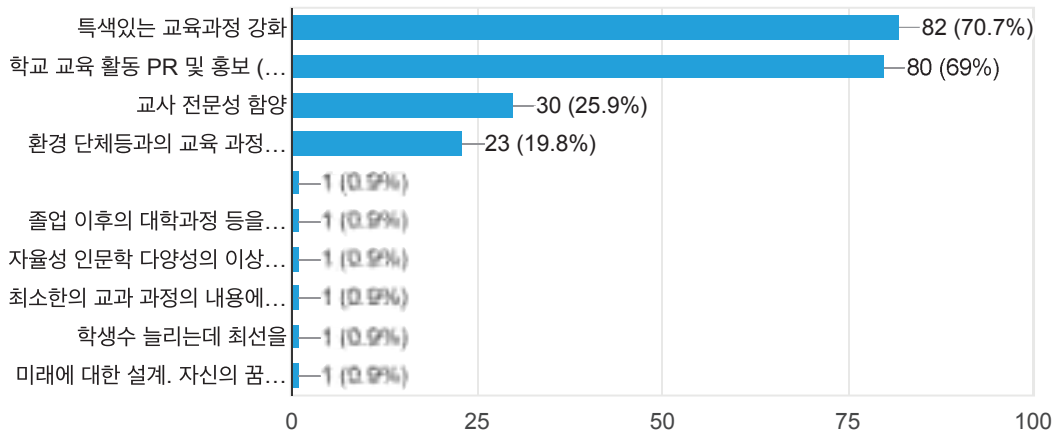
11. 푸른꿈고등학교의 가장 약점(weakness)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2)

응답 116개



12. 푸른꿈고등학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택 2)

응답 116개



13. 푸른꿈고등학교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 응원의 글을 남겨 주십시오

응답 67개

화이팅

푸른꿈고등학교를 나온 것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푸른꿈이 있어 인생이 변하고, 푸른꿈이 있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지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이런 설문이 아까울 정도로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 식지 않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건강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학교는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멀리서, 또 가까이서 응원합니다. 푸른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추후 제 자녀도 진학 의사를 고려 중입니다. 그 동안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푸고 화이팅! 오래됐지만 응원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주변을 경쟁상대로만 보는 사회구조 속에서 푸른꿈에서 공부한대로 강단있고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고민 하며 버티고 있는 많은 푸른꿈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우리사회의 대안이 되는 좋은 학교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찾고 발전시켜서 원하는 대학교 혹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탐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꿈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스스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던 것과 통합기행, 봉사활동의 경험들은 현재까지도 제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라는 점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자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교이길 바랍니다! 항상 부모님처럼 학생들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에 마음 속 가장 인상 깊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푸른꿈! 푸른꿈의 기억들은 항상 치열한 사회 속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의 학교 생활은 조금 부족한 현실 (성적, 내신, 진학 등) 이지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상 (공동체 생활, 자연 친화적 생각, 도심에선 할 수 없는 경험 등) 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생이나 앞으로 입학 할 예비 푸른꿈인이 수치에 연연한 현실보다 학교생활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졸업생으로서 혹은 선배로서 더욱 푸른꿈의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꿈을 가진 선생님들, 앞으로 또 푸른꿈을 가질 선생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통해 푸른꿈의 '선생님'들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아이가 느끼고 있습니다. 푸른꿈 덕분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진짜진짜로 아이들이 모두 착하다고 믿고 있어!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아이들을 믿어주는 어른들이 있는 푸른꿈....이미 이 곳은 '푸른꿈'입니다.

저는 5회 졸업생 장소윤입니다. 10대 생활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즐거웠던 일 그리고 잘했던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푸른꿈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했던 걸 꼽을거예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경험도 많이 했고 저의 강점이 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해준 10대 시절 이었거든요. 저는 푸른꿈고등학교가 오래도록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학교 발전을 응원합니다!!

강점이면서도 단점으로 꼽게된 '학생자율성' 에 대하여... 푸른꿈을 다닐때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부분이지만 지나고나니 후회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조금 더 일깨워주시고 일찍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철없던 그때가 너무나너무너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졸업하였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리고 있구요.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푸고만의 강점을 살려 튼튼해지기 바랍니다. 푸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잘 되고 창창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애쓰시는 분들에게 박수 보냅니다.

아직까지도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과 학교 전체적으로 페미니즘사상이 절대적으로 옳다. 심지어 레디컬 페미니즘마저 긍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런 이념적 부분보다는 생태철학적인 방면에 특화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푸고 파이팅!!

아이가 고등학교 3년간 많은 경험을 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언제나 진심이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이 푸른꿈고등학교처럼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너무 지치시면 잠시 쉬어가고, 모든 시절이 더욱 좋은 추억과 가치로 남기를 바라며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매일이 잊지 못할 순간이었음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만약 돌아간다면 부끄러웠던 선택도 다시 할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을 후배님들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도 건강히 오래 계셔주세요!

푸른꿈고등학교 졸업생으로써 고등학교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았는데 학생들이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푸른꿈 덕분에 제 고등학교 시절은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 응원하고 잘되기를 기원하며 저 또한 푸른꿈 시절의 따뜻함과 행복한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꿈고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학교로서 성장이 확실합니다. 가장 힘들면서 역할을 다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력과 역량강화에 더 충실할 때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를 채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푸른꿈고등학교가 아닌 정말 학생들이 푸른꿈을 꾸며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방치가 아닌 따뜻한 관심과 뚜렷한 교육체계를! -13기 졸업생 서의림 -

5기 졸업생입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학교가 더 좋아진 거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대로 푸른꿈 가족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도 다 가능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화이팅!

제 삶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삶에서 유일하게 마음 편히 지냈던 곳으로 남아있는 푸른꿈 고등학교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한 교육의 장으로 남아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학교를 통해 배운 것은 그 무엇보다 관계입니다. 사회 어떤곳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었던 성숙해질 수 있었던 3년이었습니다.

학교가 시설들이 확대된것 같아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및 공동체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재학중에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선생님들 속을 많이 썩였지요.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22기 졸업생입니다! 설문을 하면서 고등학생 때 기억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꼭 찾아 가보고 싶네요.

푸고를 나온 건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기억들 중 하나입니다. 후배님들도, 선생님들도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애정을 가지고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공동체 정신과 생태교육이 살아숨쉬는 푸른꿈이 되길 바랍니다.

푸른꿈고등학교에 다니며 일반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게 너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 보고 싶어요^^ 덕분에 졸업까지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립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간 내서 찾아뵙겠습니다.

푸른꿈고등학교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화이팅하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고 추후 제 자녀도 진학 의사를 고려중입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이나라 미래의 자산들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구성원을 화이팅 하십시오

10기입니다 푸른꿈에서의 3년의 경험이 현재 30 대의 중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유능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만해도 많은 경험이 되었었습니다 푸고 화이팅!

빛과 소금의 인재를 키워내는 보석같은 학교로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학교이고, 좋았던 학교였던 푸른꿈고등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사랑하는 푸른꿈! 앞으로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꿈고등학교의 생활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설 수 있는기회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소중한 고등학교 시절과 귀한 인연 맺게 된 푸른꿈고등학교 고맙습니다~

재학생들의 고민을 졸업생과 교사가 소통하는 장이 자주 있었으면 한다.

우리사회의 대안이 되는 좋은 학교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임놀무튀 푸고 선생님, 학생, 부모님들 건강하게 잘 노시길...

푸른꿈고등학교 사랑합니다.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주세요

행복했어요, 푸른꿈에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립습니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만났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바꿨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넘치는 따뜻함에 감사드립니다.

아자아자 화팅이다! 응원하고 있어요 ~

자연처럼 늘 변함없이 변하시길.....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선생님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3년이었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선생님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쇼/ 파이팅

<요즘 푸른꿈고등학교>

■ 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jbedu.kr/purunkum>)



■ 학교 홈페이지-나눔마당-활동(사진)마당 (2024년도 에피소드)



Episode 1. 26기 푸른공 새내기와 입학. 첫 만남 (2024.3.4.)					
작성자	서주은	등록일	24.03.25	조회수	108
첨부파일					

Episode 1. 26기와의 첫 만남 (2024.3.4.)

프디어 푸른공에서 26기 새내기를 맞이했습니다.

윤*미 램과 최*석샘이 새로이 1학년 담임샘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학과 함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나를 알아보고 나와 다른 친구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26기 친구들의 낯선 첫 학교생활이지만 선생님의 친절과 샘들의 격려 속에 즐겁게 할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후고의 친구이니지요.



Episode 2. 새우젓? 새우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작성자	서주은	등록일	24.03.26	조회수	130
첨부파일					

Episode 2. 새우젓? 새우가 되기 위한 조건은? (2024.3.26.)

올해 첫 새우총회가 있었습니다. '새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수준 수렴성의 관점에서 입생(입생)이 있어야 새우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한발자리를 훌쩍쳐서 훌쩍쳐서 갈아 가는 입생은 무수히 많은 입생이 있어야 하겠지요.

푸른공의 첫 새우총회는 '푸른공의 스페셜'의 초점을 찍어 진행했습니다.

2학년 *윤과 *은의 사죄로 시작된 무대는 1학년 *미, 2학년 *은, *빈의 생과 노래 그리고 역사상의 사죄, 눈물샘을 자극한 배나샘과 학생회를 향한 대질 어판 *은샘의 광학공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합의의 재학생인 보리스 그리고 1학년 *하의 일제치하 반부는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가을달라지만 해피엔딩(해피의 일족), 양희갑샘들여치(양갑), 농우부(Whisper Team), 뽀빠(시라노니), 비건우리듬메리(비강테디), 뽀빠(시라노니)의 개성 있는 홍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을달라지만 곧바로 고시감의 새우총회도 순서—— 진행되었습니다.

4월의 *목샘의 기대지는 초롱이 예뻐서였습니다. 푸른공에서.





Episode 149 우리 함께 만들어 -
이무촌 | 24.10.31
초화:8



Episode 148 동아리 '한살'의 자-
이무촌 | 24.10.30
초화:30



Episode 147 푸른꿈 이무촌학교-
이무촌 | 24.10.29
초화:53



episode 146 푸른꿈 24기 졸업-
이무촌 | 24.10.28
초화:83



episode 145 가을이 오면 (소풍)-
이무촌 | 24.10.25
초화:87



episode 144 영화 OST를 기반으로-
이무촌 | 24.10.24
초화:65



episode 143 푸른꿈고등학교-
이무촌 | 24.10.23
초화:72



episode 142 파란불 읽다 (3화)-
이무촌 | 24.10.22
초화:79



episode 141 푸른 하늘 아래 봄-
이무촌 | 24.10.21
초화:68



episode 140 선문군 학교협 강행-
이무촌 | 24.10.18
초화:81



episode 139 비전전통품, 그들자-
이무촌 | 24.10.17
초화:74



episode 138 (1~4) 2024 푸른-
이무촌 | 24.10.16
초화:61



episode 137 생동과 함께 하는-
이무촌 | 24.10.15
초화:89



episode 136 지혜의 보아미 재현-
이무촌 | 24.10.14
초화:76



episode 135 문화의 통일-전교-
이무촌 | 24.10.11
초화:87



episode 134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무촌 | 24.10.10
초화:82



episode 133 잔포살날 및 직업제-
이무촌 | 24.10.09
초화:95



episode 132 함께 노파를 부르는-
이무촌 | 24.10.08
초화:67



episode 131 새로운 보물창고다-
이무촌 | 24.10.07
초화:74



episode 130 푸르 2단 졸업기 대-
이무촌 | 24.10.04
초화:69



episode 129 일회학교 (보개남)-
이무촌 | 24.10.02
초화:100



episode 128 우리는 One health-
이무촌 | 24.10.01
초화:87



episode 127 미래의신은 관동기-
이무촌 | 24.09.30
초화:92



episode 126 이학(이학)- 학생-
이무촌 | 24.09.27
초화:108



episode 125. 티끌—— (저녁시간) ——
이무촌 | 24.08.26
초희 | 127



episode 124. 드론 방과후수업 ——
이무촌 | 24.09.25
초희 | 93



episode 123. 어릴 때 재학이었다——
이무촌 | 24.09.24
초희 | 99



episode 122. 전북특별자치도교——
이무촌 | 24.09.23
초희 | 102



episode 121. "프랜차이즈"가 전——
이무촌 | 24.09.20
초희 | 133



episode 120. 추수 보충할 소원——
이무촌 | 24.09.19
초희 | 82



episode 119. 교육공무원 무촌을——
이무촌 | 24.09.12
초희 | 130



episode 118. 농림이비—— 성립까지——
이무촌 | 24.09.11
초희 | 138



episode 117. 507 지후청과 방——
이무촌 | 24.09.10
초희 | 119



episode 116. 25년 신인생을 해——
이무촌 | 24.09.09
초희 | 115



episode 115. 무촌을 방구와 재——
이무촌 | 24.09.06
초희 | 151



episode 114. 풍의 머리가 함께——
이무촌 | 24.09.05
초희 | 120



episode 113. 24 우리는 무촌——
이무촌 | 24.09.04
초희 | 116



episode 112. 나는 뭐 좋아하——
이무촌 | 24.09.03
초희 | 102



episode 111. 서진강화 및 서진——
이무촌 | 24.09.02
초희 | 98



episode 110. "물론으로 시작하——
이무촌 | 24.08.30
초희 | 88



episode 109. "전북 119 안전세——
이무촌 | 24.08.29
초희 | 146



episode 108. "공파—— 물감그 채——
이무촌 | 24.08.28
초희 | 109



episode 107. "법학의 품위" (20——
이무촌 | 24.08.27
초희 | 145



episode 106. "법학"——
이무촌 | 24.08.25
초희 | 108



Episode 105. 무촌을에서는 무촌——
이무촌 | 24.08.22
초희 | 101



Episode 104. 그림을 그리는데 ——
이무촌 | 24.08.21
초희 | 108



Episode 103. "법학 학교는 학생——
이무촌 | 24.08.20
초희 | 95



Episode 102. "우리학교 원 POK"——
이무촌 | 24.08.19
초희 | 127



Episode 66. 이호-이종민학미-
이무촌 | 24.07.26
초회: 111



Episode 65. 노한계 재일 동아리-
이무촌 | 24.07.25
초회: 140



Episode 64. 우문잡화 나리새
이무촌 | 24.07.24
초회: 120



Episode 63. 뽕 배프스7 (수학실)-
이무촌 | 24.07.23
초회: 96



Episode 62. "무인 아이수아아"-
이무촌 | 24.07.22
초회: 106



Episode 61. 보오 특기작품 수업-
이무촌 | 24.07.21
초회: 107



Episode 60. 권지과 심재초점물-
이무촌 | 24.07.19
초회: 110



Episode 59. 3학년 진보제원 및 -
이무촌 | 24.07.18
초회: 124



Episode 78. 사회체육회 학교원-
이무촌 | 24.07.17
초회: 87



Episode 77. 우문잡화 숲은 장강일-
이무촌 | 24.07.16
초회: 110



Episode 76. 내지 반지 앞 길어-
이무촌 | 24.07.15
초회: 118



Episode 75. 우문 학교스포츠클럽-
이무촌 | 24.07.12
초회: 128



Episode 101. "우문잡화" 장강일-
이무촌 | 24.08.16
초회: 127



Episode 100. 우문잡화 만나오-
이무촌 | 24.08.12
초회: 117



Episode 99. 순재할 프로그램 교-
이무촌 | 24.08.09
초회: 149



Episode 98. 순재할 프로그램 교-
이무촌 | 24.08.08
초회: 91



Episode 97. 우문잡화 교사민주들-
이무촌 | 24.08.07
초회: 88



Episode 96. 윤지초보사학 함께-
이무촌 | 24.08.05
초회: 93



Episode 94. 단청이 좋다. 사월어-
이무촌 | 24.08.01
초회: 139



Episode 93. ECO친화물 (7.31)
이무촌 | 24.07.31
초회: 130



Episode 92. 지구별 미나모-들-
이무촌 | 24.07.30
초회: 100



Episode 91. 제2회 우문잡화경연-
이무촌 | 24.07.29
초회: 103



Episode 90. 제2회 우문잡화경연-
이무촌 | 24.07.28
초회: 107



Episode 89. 제2회 우문잡화경연-
이무촌 | 24.07.27
초회: 107



Episode 74. 서해지(학교)활동지-
이무촌 | 24.07.11
초화:138



Episode 73. 환경교육 "자연을"
이무촌 | 24.07.10
초화:114



Episode 72. 시험~~ 피할 수 없..
이무촌 | 24.07.09
초화:97



Episode 71. 그루프의 댄스동아..
이무촌 | 24.07.08
초화:91



Episode 70. "발레처럼 책을 읽는"
이무촌 | 24.07.05
초화:107



Episode 69. 2학년 희망 대한 해..
이무촌 | 24.07.04
초화:140



Episode 68. 합창바 윈드는 고장..
이무촌 | 24.07.03
초화:94



Episode 67. "코코노미아키" 요리..
이무촌 | 24.07.02
초화:92



Episode 66. 동해시마-해리치-
이무촌 | 24.07.01
초화:83



Episode 65. "커직 전지 합체요"
이무촌 | 24.06.28
초화:105



Episode 64. 6월의 식구총회. (2-
이무촌 | 24.06.27
초화:101



Episode 63. 여기-개구리가 살..
이무촌 | 24.06.26
초화:109



Episode 62. "다함"이 되 해 주다..
이무촌 | 24.06.25
초화:207



Episode 61. 주제를 환경교육 해..
이무촌 | 24.06.24
초화:103



Episode 60. 학생회창단 선출 (2-
이무촌 | 24.06.21
초화:135



Episode 59. 제24회 전학 청소년..
이무촌 | 24.06.20
초화:129



Episode 58. 세대 임시문화반 (1-
이무촌 | 24.06.19
초화:133



Episode 57. 동아리와 함께 하는..
이무촌 | 24.06.18
초화:151



Episode 56. '물살'을 알아 두시게..
이무촌 | 24.06.17
초화:127



Episode 55. 김포 (8월)
이무촌 | 24.06.14
초화:94



Episode 54. 그루프-14 (2024.6-
이무촌 | 24.06.13
초화:77



Episode 53. 그루프의 날 기념 해..
이무촌 | 24.06.11
초화:120



Episode 52. '무형'을 찾는다. (서..
이무촌 | 24.06.10
초화:127



Episode 51. 서해로 (방미후..
이무촌 | 24.06.05
초화:129



Episode 49. 우주교육장에 교육
이무촌 | 24.06.04
초록: 105



Episode 48. 삼일의 숲, 광강파라
이무촌 | 24.06.03
초록: 150



Episode 47. 청소년들 자기 삶에
이무촌 | 24.06.02
초록: 106



Episode 46. 아홉아-가게서 참
이무촌 | 24.05.31
초록: 208



Episode 45. 우주 단상교과 축구
이무촌 | 24.05.30
초록: 133



Episode 44. '설립자의 별, 그리
이무촌 | 24.05.29
초록: 92



Episode 43. 푸른빛 웨이트 브러
이무촌 | 24.05.28
초록: 132



Episode 42. 자랑스런 청소년일
이무촌 | 24.05.27
초록: 120



Episode 41. 통천기행 세레 날
이무촌 | 24.05.24
초록: 173



Episode 40. 통천기행 둘째 날, 세
이무촌 | 24.05.23
초록: 143



Episode 39. 우리-웨이트이와17
이무촌 | 24.05.22
초록: 179



Episode 38. 청문도서관을 소개
이무촌 | 24.05.21
초록: 123



Episode 37. 꿈을 위한다는 것 (1
이무촌 | 24.05.20
초록: 105



Episode 36. 동물체험 이야기 (2
이무촌 | 24.05.14
초록: 107



Episode 35. 알뜰 화물입니다!
이무촌 | 24.05.13
초록: 176



Episode 34. *사실, 기록과 공문
이무촌 | 24.05.10
초록: 160



우리는 다 다르다. 새롭게 떠타
초록: | 24.05.09
초록: 174



Episode 32. 자기성찰프로그램 E
이무촌 | 24.05.09
초록: 124



Episode 31. 서늘하게 하다구27
이무촌 | 24.05.08
초록: 164



Episode 31. 귀여움을 소개합니
이무촌 | 24.05.07
초록: 120



Episode 30. 아이들-제61arty
이무촌 | 24.05.03
초록: 173



Episode 29. 아-를 참아라. (2
이무촌 | 24.05.02
초록: 157



Episode 28. 푸르미 세다론 노들
이무촌 | 24.05.01
초록: 146



Episode 27. 2학년들의 물고기
이무촌 | 24.05.01
초록: 173



Episode 26. 4월의 지구문화 (중) -
이무촌 | 24.04.30
조회수: 106



Episode 25. 동물들의 삶을 식구 -
이무촌 | 24.04.29
조회수: 161



Episode 24. EM을 만들거. (2024.3.22) -
이무촌 | 24.04.26
조회수: 156



Episode 23. 봄을 맞이하는 4월의 -
이무촌 | 24.04.25
조회수: 130



Episode 22. 피를 내는 형제의 장 -
이무촌 | 24.04.24
조회수: 152



Episode 21. 꽃을 위한 지구는 없 -
이무촌 | 24.04.23
조회수: 106



Episode 20. 초록의 스펀 만들기. -
이무촌 | 24.04.22
조회수: 146



Episode 19. 봄에 꼭 해야 하는 -
이무촌 | 24.04.19
조회수: 150



Episode 18. 우리가 할 수는 없지 -
이무촌 | 24.04.18
조회수: 138



Episode 17. Kakak 알고 Brother -
이무촌 | 24.04.17
조회수: 147



Episode 16. 천개의 바람이 되어 -
이무촌 | 24.04.16
조회수: 149



Episode 15. 테니스가 배우고 싶 -
이무촌 | 24.04.15
조회수: 114



Episode 14. 꽃길만 걷게 해 줄게 -
이무촌 | 24.04.12
조회수: 114



Episode 13. 샌드는 나의 표현. (중) -
이무촌 | 24.04.11
조회수: 139



Episode 12. 노동인권교육. (2024.3.22) -
이무촌 | 24.04.10
조회수: 118



Episode 11. 봄을 맞이하는 꽃 -
이무촌 | 24.04.09
조회수: 156



Episode 10. 도자기의 삶인, 문기 -
이무촌 | 24.04.08
조회수: 114



Episode 9. 날기에서 생물의사피 -
이무촌 | 24.04.05
조회수: 149



Episode 8. 제주 4.3사건을 이서 -
이무촌 | 24.04.04
조회수: 108



Episode 7. 나무를 잃는 사람들. -
이무촌 | 24.04.03
조회수: 108



Episode 6. 풍설이(가) 추위(가) -
이무촌 | 24.03.02
조회수: 119



Episode 5. 사치를 하다. (2024.3.22) -
이무촌 | 24.03.31
조회수: 106



Episode 4. 위계수업 (2024.3.22) -
이무촌 | 24.03.29
조회수: 100



Episode 3. 농구왕이리(Hadern) -
이무촌 | 24.03.27
조회수: 130

푸른꿈고등학교 중점 교육활동

- 생태전환형 교육 프로그램
-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 대안교육 우수 프로그램
-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 협력과 돌봄의 프로그램



생태전환형 교육 프로그램

- ‘생태철학’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으로 과목에서 삶은 환경(1학년), 환경(2학년), 지속가능발전탐구(3학년)으로 기초 지식에서부터 심화하는 교과목으로 연계, 구성함.
- 나아가 생활 습관, 태도, 감수성 영역으로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을 위하여 의, 식, 주 교육과정(생활탐구, 생활기술)과 융합하는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함.
- 굿네이버스와 협업한 초등학교 대상 친환경 실천 교육, 지구의 날 행사, 주기적인 아나바다(푸른마켓) 행사, 플로깅, 비건 실천 행사 등을 운영함.
- 2017년 이후 5년간 환경부 지정 꿈꾸는 환경학교 운영, 2021년부터 2년째 지구살리기 실천학교 운영, 생태학습장 조성(2021) 등의 성과를 만듦.
- 2023년 환경부 지정, 2023~2025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프로그램명	개 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환경 및 다양한 교과목의 융·복합 교육과정 삶은 환경(1학년)-환경(2학년)-지속가능발전탐구(3학년)
의식주 교육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을 통한 생활태도와 습관의 변화를 추구
푸른꿈자원순환센터	친환경농장과 공작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자원의 순환을 배우고 익혀 실생활에 필요한 식재료를 생산하고 물건을 수리하거나 창작하는 활동
푸른마켓	물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한 자원순환 활동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천 교육	기후위기행진 참여, 환경 실천을 위한 계기수업 및 실천활동 9월 ‘기후정의학습의 달’ 운영으로 환경교육 융합수업 연구 및 실천
먹거리 변화를 통한 실천	비건 선택 급식 지향을 위한 연구 및 실험
2024년 여름 방학 환경 캠프	중학생 대상의 환경 캠프 운영
통합기행	학교 밖 교육환경에서 통합적인 학습을 경험하며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협력과 자립생활 능력을 배움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1. 교과 학습 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불독)을 통한 문해력 향상

- 기초학력의 두 가지 핵심 역량은 문해력과 수리력이고, 특히 문해력은 모든 교과 학습의 기초다.
- 한 학기 교과 수업 중 2주는 정규 교과 수업 중 독서 활동으로 학습한다.
- 독서 활동을 교과 수행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
- 교과 관련 도서는 교육과정, 학습 목표와 성취수준에 관련성, 그리고 교과 지식과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와 도서를 선정한다.
- 2024년 교과 학습과정 불독 도서 현황

교과	지정도서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에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꼬리와 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게 그린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게 다가온 수학의 시간들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aper bag princess (Robert Muns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ggybook (Anthony Browne)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자마자 과학의 역사가 보이는 원소 어원 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를 위한 총균쇠 수업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감각
역사/ 에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이 온다 • 도쿄 조선대학교 이야기 • 래빗 • 작별하지 않는다 • L의 운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 	
일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동 한 그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악과의 만남 		
문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색인간 •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 제제벨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큐정전 • 오발탄 • 동물해방 • 소유냐 존재냐 •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 사피엔스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영혼의 그림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한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읽는 법 • 불편한 미술관

2.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 목적

현대의 문해력이란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기초적인 문해력 향상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사고력 확장을 이루고자 한다. 학생 개인의 기초적 문해력을 진단하고 모든 교과 수업에서 문해력 활동영역 디자인, 에세이 쓰기, 독서활동 등을 통해 전체 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교육과정 운영 중심 목표로 한다.

• 주요 프로그램

◎ 1학년 ‘문해’ 수업 & 2, 3학년 ‘에세이 쓰기’ 수업 운영

- 1학년은 3단위, 2학년 3단위, 3학년은 2단위로 운영하며, 문해와 에세이쓰기 지도교사팀을 구성하여 진행함.
- 학년별 읽기 자료의 차별화를 통해 수준별 수업(1학년-신문기사 중심, 2학년-칼럼, 에세이 중심, 3학년-칼럼, 고전 중심)
- 50분 수업에서 ①텍스트 읽기(학생 낭독으로 독해와 집중력 지원), ②독해 문제 풀이, ③주1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에세이 쓰기, ④주1회 에세이 낭독과 듣기, 소감 나누기로 운영

◎ ‘야한독서’ 프로그램

- 월1회 다양한 분야의 도서 선정, 희망 학생들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4~5시간 독서 및 토론 진행
-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론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를 돕는 과정

3.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향

-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한다.
- 학기초, 기초학력진단검사를 기반으로 미도달 예상학생을 파악하여 교과 교사나 담임교사, 상담교사가 대상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실시하여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에 주력하여 지원한다.
- 학기말, 학업성취율 40%미만일 때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로 판정하고, 방과후지도, 보충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운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최소 학업성취를 돕는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 우리학교 학생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더불어 학습흥미 및 동기부여를 위한 통합적 지원방향을 함께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의 근본적인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3-1. 국어교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를 한다.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계획

- 학습지원 대상자가 수강자의 20% 이하인 경우 : 학습지원 대상 영역의 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별도의 학습지'를 제작하여 교과 시간 및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과제 수행 지도 및 피드백 실시
- 학습지원 대상자가 수강자의 20%를 초과한 경우 :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특별 보충 프로그램 및 원격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진 학생 지도 실시

• 미도달 예방지도

- 정의적 측면에서 학습 흥미 및 동향 프로그램 제공(4시수)
- 교과 학업 상담(2시수): 국어과 수행평가 참여 유도 및 문해력 향상 계획세우기 중점
- 기초학력 증진(문해력)을 위한 보충 과제 부여
- 방과 후 보충지도(6시수): 기초학력 증진(문해력)을 위한 보충 과제 부여, 피드백 및 별도의 학습지를 통한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미도달학생 보충지도

- 학기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도달 학생 파악 및 지도
- 기초학력 증진(문해력)을 위한 보충 과제 부여 및 피드백
- ebsi 온라인 콘텐츠 활용(방학 중)

• 공통과목 국어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학생 지도계획

수행 활동	수업 방안	수행 과제
듣기·말하기 중 하나의 활동을 골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다.	1) 제시된 글을 소리내서 낭독하고, 글에 대한 감상 나누기	- 독서 대화 - 상대의 말을 듣고, 피드백하기
기초적인 수준에서 자기의 삶과 연결지어 글을 읽거나 필자의 관점이 적절한지 부분적으로 판단하며 글을 읽는다.	1) 학생 수준에 맞는 글 고르기 2)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발문하기 3) 단어, 어구, 문장의 의미를 조사하고 기록하게 하기	- '나만의 공책'에 글쓰기 (활동 요소를 모두 작성) - 상시 피드백을 통해 작성 수준에 향상되도록 피드백하고 지도하기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짧은 글이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짧은 글을 쓴다.	4) '나에게 온 문장'을 기록하기 5) 4)를 바탕으로 물결 글쓰기 활동하기 6) '나만의 공책'에 활동 요소들을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국어생활)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 중 일부를 수정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1) 미습득된 학습요소를 파악하여 적절한 설명 제시 2) 형성평가, 짧은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하기	- 한글 맞춤법(국어 지식) 형성평가 - 자신이 쓴 짧은 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쓰기

3-2. 수학교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방과후 지도, 온라인 콘텐츠(EBSi)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등의 방법 활용하여 수리력 향상을 지원한다.

구분	운영 프로그램	대 상	방 법
1	◦ 기초 연산	학습 곤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여 지도	일대일
2	◦ 함수	2-3학년 중 함수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학생 대상으로 지도	그룹 학습
3	◦ 교과 복습	보충과제를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학습 멘토링

3-3. 영어교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미도달 예방지도
 - 정의적 측면에서 학습 흥미 및 동향 프로그램 제공(4시수)
 - 교과 학업 상담(2시수): 영어과 수행평가 참여 유도 및 독해력 향상 계획세우기 중점
 - 기초학력 증진(독해력)을 위한 보충 과제 부여
 - 방과 후 보충지도(6시수): 기초학력 증진(독해력)을 위한 보충 과제 부여, 피드백 및 별도의 학습지를 통한 '독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미도달학생 보충지도
 - 학기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도달 학생 파악 및 지도
 - 기초학력 증진(독해력)을 위한 보충 과제 부여 및 피드백
 - ebsi 온라인 콘텐츠 활용(방학 중)
- 미도달학생 공통과목 영어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학생 지도계획

구분	영역	지도 방안	비고
1	말하기·듣기	- 본문 관련 음성 파일을 듣고 따라 읽기 - 자신이 낭독한 음성 파일 제출 및 청취	1:1 에듀테크 활용
2	읽기	- 멘토 학생과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하기	그룹 학습 학습 멘토링
3	쓰기	- 온라인 사전과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문 영작하는 연습하기	1:1 에듀테크 활용



대안교육 우수 프로그램

대안교육 프로그램 축적과 실험을 기반으로 특성화학교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 형성과 다양하고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적 경험을 지원하고자 한다.

1

인문학캠프

- 대상 : 전교생
- 기간 : 12월 11 ~13일
- 주요내용
 - 책을 읽으며 문맥을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등의 문해력을 향상한다.
 - 1년 동안의 교과 수업, 북독, 야독, 특강 등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양한 인문학 실력을 점검하고 결산하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접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정립한다.
- 운영방향
 - 학교 철학 및 교육과정을 반영한 주제 및 도서를 선정한다.
 - 전교생과 교사가 캠프 기간 동안 지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실시한다.
 - 같은 공간에서 정해진 분량의 읽기 활동한다.
 - 책의 주제 및 내용을 반영한 질문을 만들고 각자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 캠프를 시작하고 끝내는 의례에 참여한다.
 - 해당 도서의 저자를 초청하여 대화활동에 참여한다.

2

푸른꿈 독서 프로그램 [불독]과 [북독]

푸른꿈고에서의 ‘학력’은 생각하는 방법과 힘을 의미하며 그 기초에 문해력과 수리력이 있는데, ‘불독’과 ‘북독’은 이러한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치열한 독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1. 불독

[불독] 주요내용

- [불독]은 ‘불편한 독서’의 준말이며 동시에 반려견 ‘*불독’을 지칭한다. (*반려견 불독은 몸집은 작고 순한 견종이지만 ‘용기’와 ‘고집’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음)

- 푸른꿈고 학생들에게 독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며 어려운 학습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책'의 내용과 독서가 익숙하고 쉬운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을 만나 지식의 확대, 생각의 확장에 도전하는 경험으로 삼고자 한다.
- 불독 프로그램은 모든 교과와 연계한 독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서의 독서 프로그램으로서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의 중심인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불독] 운영방향

- ① 모든 교과에서 교과목 교과 지식의 확장을 돕는 두 권의 도서를 선정한다.
- ② 푸른꿈고의 독서프로그램인 북독과 야한 독서에서 읽을(은) 도서 선정한다.
- ③ 푸른꿈고 전체 학생은 3년 동안 매년 위 두 가지 영역에서 선정한 도서 50권을 교과 수업과 창체활동(북독), 기타 독서프로그램(야한독서)에서 읽고 토론에 참여한다.
- ④ 매년 학년말(12월)에 교과 관련 도서에서 제출한 50문제를 푸는 '도전! 불독'을 운영한다.
- ⑤ 도서는 한 학년 분량씩 구입, 전교생이 대출 형식으로 이용한다.
- ⑥ 독후 활동 일지를 만들어 운영한다.

2-2. 북-톡

[북-톡] 주요 내용

- 2021년부터 시작한 독서프로그램으로서 기초학력 중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문해력 향상은 읽기의 습관뿐만 아니라 읽기를 통한 성취감, 성공의 경험 등을 통해 가능함을 실현하고자 한다.
- '다독'이 아니라 '깊이 읽기', '혼자 읽기'가 아니라 '함께 읽기', 그리고 독후 활동으로서 토론, 가벼운 독후 talk 등을 지향하며 운영한다.

[북-톡] 운영 방향

- ① 창체시간을 활용, 전교생이 동일한 책을 읽고, 모둠 토론으로 질문 만들기, 전교생이 모여 비경쟁 토론하기 등으로 운영한다.
- ② '깊이 읽기'와 '함께 읽기', 그리고 독후 활동으로서 토론과 talk가 가능하도록 동화, 단편, 에세이 등을 중요한 텍스트로 삼고 진행한다.
- ③ 한 학기에 2회, 연 4회의 북톡을 기획 운영한다.

3

통합기행 '섬진강 도보기행'

- 대상 : 전교생과 전교사
- 기간 : 5월 14일 ~ 5월 17일 (3박4일)

• 주요내용

-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학교를 떠나 생태, 환경 등에 대해 확장된 배움의 시간을 갖고, 통합적인 체험학습과 야영학습을 경험하며 생태감수성 함양과 자립 생활 능력, 돌봄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활동이다.

• 운영방향

- 야영, 도보, 취사를 기본으로 덜 소비하고 자립력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경험한다.
- 섬진강의 생태환경과 더불어 동료들과 걸으며 사람과 자연에 대한 공생의 감각을 키우는 경험을 한다.
- 사전 준비기간에 연관 학습주제를 가지고 교과수업시간에 탐색하고 교류하며 통합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한다.
- 무학년 모듬을 구성하고 사전 준비부터 실제 기행 및 사후 평가까지 협업과 돌봄을 기반으로 문제해결력을 키운다.

• 운영일정

일정	일정		이동 거리	숙박지	프로그램
	오전	오후			
5월 14일	학교(버스) => 물우마을(주먹밥_학교)	물우마을 ~ 마실오토캠핑장	12km	마실오토캠핑장	야영활동 모듬활동
5월 15일	마실오토캠핑장 ~ 화탄잠수교	화탄잠수교 ~ 향가오토캠핑장	21km	향가오토캠핑장	
5월 16일	향가오토캠핑장 ~ 곡성청소년야영장	모듬별 학급별 단체활동	31km	곡성 청소년야영장	
5월 17일	곡성청소년야영장 - 구례역 이동 및 학교로 출발!				

4 푸른꿈자원순환센터

- 생태농장과 공작소 운영을 중심으로 생태적 감수성과 생활 문화교육 역량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자원과 생명의 순환을 배우고, 환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며 실천력을 향상한다.

• 생태농장 교육활동

- ①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위한 학습활동
- ② 생태농업, 환경, 기술·가정 교과 연계 운영
- ③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급식실 일부 재료 및 기술·가정 실습재료 활용

- ④ 교내·외에서 나오는 다양한 유기물(잡초, 급식실 부산물, 낙엽, 축분, 생태화장실)의 퇴비화 활용
- ⑤ 친환경 우렁농법 벼재배와 수확까지 함께 노동하며 한 해의 순환을 배움
- ⑥ 지역과 연계하여 농민의날 행사를 진행하고 소비적인 문화의 대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운영

• **공작소 교육활동**

- ① 리사이클 또는 업사이클 디자인 연구 및 제작, 수리 활동
- ② 미술, 생활기술, 창작활동, 환경 등 교과 연계 운영
- ③ 각종 공구 사용법을 익히고 실생활에 응용
- ④ 학교 내외 재활용 자원 활용
- ⑤ 방과 후 동아리 운영

5 문화에 풍덩

- 대상 : 전교생
- 기간 : 연 4회
-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통 등 문화예술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예술 향유와 품격있는 소통을 배운다.
- 연 4회 금요문화의 날로 기획하여 연극, 영화, 뮤지컬 단체 관람한다.
- 프로그램 체험 후 토크콘서트와 에세이쓰기로 연결하여 스토리텔링과 글쓰기를 접목하여 깊이 있는 감성교육이 되도록 한다.

6 가을소풍

- 대상 : 전교생
- 기간 : 10월 22일
- 학생자치회의 주도적인 기획과 운영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도모한다.
-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학교 밖 교실로 삼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동료와 자연, 놀이가 어우러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한다.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자신과 삶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 세상에 대한 이해는 진로 탐색의 주요한 키워드이다.
여러 교육활동을 기반으로 역동적인 자기탐색을 이루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간다.

프로그램명	개 요
인턴십	개별 학생의 요구와 특기, 적성에 맞는 현장과 멘토를 찾아 탐색, 여름방학기간 10일 이상의 현장 인턴 활동과 프리젠테이션하기 2학년 교육과정으로서 역동적인 자기탐색 활동
진로캠프	(1학기) 다양한 분야의 선배와의 만남, 직업 및 삶에 대한 이야기 만나기 (2학기) 삶의 다양한 상상력을 위한 선택형 특강(졸업생 및 학부모)과 학생주도 탐색활동
토요 특기적성 프로그램	바리스타, 제과제빵, 도예 등 특기, 적성, 취향 만나기
자기성장프로젝트	영화, 음악, 연극, 공연, 스포츠, 미술, 사진, 도예 등 다양한 학습과 문화예술을 경험하면서 인식의 확장, 진로탐색의 기회 마련하기
동아리 활동	진로, 취미, 특기,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탐구 활동하기
자율 카페 운영	학생 자율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건전한 경제관념과 학생 문화 코어(Core) 만들기



협력과 돌봄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개 요
식구총회	매월 1회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의 문화와 여러 문제에 대하여 소통하고 협의하며 공동체 역량을 키워냄
자치회의 및 활동	학급회, 대의원회, 총학생회, 동아리회, 기숙사회 등 자치회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감
젠더 교육	성평등한 학교문화와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위한 언어와 태도를 배우고, 혐오의 문화를 근절하는 용기와 돌봄과 협력의 관계를 도모하는 역량을 성장시킴
회복적생활교육 솔루션회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는 학생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위하여 솔루션회의를 운영

푸른꿈고등학교 교직원 규약

나는 푸른꿈고등학교 그 시작의 정신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발적 희생과 봉사, 기득권의 양보, 타인에 대한 배려, 믿음과 사랑에 바탕한 공동체적 선(선)의 구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직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며 동지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나의 최선의 것을 조건 없이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2. 나는 간결과 검소, 청빈의 생활을 통해 자연과 합일될 수 있는 생태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청빈과 생태적 삶 실천)**
3. 나는 숭선적 노동으로 기쁨을 느끼며, 노동으로 흘리는 땀이 자아실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노동)**
4. 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그 지평을 넓히는 데 힘쓰겠습니다. **(관계성 회복)**
5. 나는 긍지를 지닌 푸른꿈 가족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통해 생활 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표/ 師表)**
6. 나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겠으며, 이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자존중)**
7. 나는 학교 운영과 재정의 모든 부분을 공유하고 동참하며, 업무 집행 시 학교 공동체의 입장이 개인의 입장을 우선하는 데 동의합니다. **(운영 및 재정)**
8. 나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겠습니다. **(출퇴/ 出退)**